

발간등록번호

2021-기획총괄-003호



kfamilypolicy.or.kr

familyseoul.or.kr

2021 한국가족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서울가족사업 세미나

K-Family, 변화와 정책의 확장

2021. 11. 5. (금) 13:00~17:00

  온라인 생중계

공동주관

SSFP 한국가족정책학회
Society for the Study of Family Policy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주최

사회보장위원회
Social Security Committee

서울특별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of Health & Social Affairs

발간등록번호

2021-기획총괄-003호


kfamilypolicy.or.kr

familyseoul.or.kr

2021 한국가족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서울가족사업 세미나

K-Family, 변화와 정책의 확장

2021. 11. 5. (금) 13:00~17:00

 온라인 생중계

공동주관

SSFP 한국가족정책학회
Society for the Study of Family Policy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주최

사회보장위원회
Social Security Committee

서울특별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of Health & Social Affairs

Schedule

2021 한국가족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서울가족사업 세미나

K-Family, 변화와 정책의 확장

- | **공동주관** 한국가족정책학회,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 | **공동주최** 사회보장위원회, 서울특별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일 시** 2021. 11. 5.(금) 13:00~17:00
- | **장 소**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222동 B1 최병오홀
- | **방 법** Zoom & Youtube 동시 생중계

1부 한국 가족의 변화와 진보 사회보장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사회: 손서희(숙명여자대학교) 13:00~15:20

개회사 및 축사	13:00~13:10	한국가족정책학회 진미정 회장, 사회보장위원회 송준헌 사무국장
주제발표1	13:10~13:30	한국가족, 어디로 가나? : 가족변화의 압축성과 급진성 김혜영(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주제발표2	13:30~13:50	혐오·갈등에서 애정·연대로: 젠더와 가족 유재언(가천대학교)
주제발표3	13:50~14:10	세대와 가족: 세대간 형평과 가족의 지속가능성 한준(연세대학교)
주제발표4	14:10~14:30	일·생활 균형의 가치와 전략적 선택 변화 진미정(서울대학교)
주제발표5	14:30~14:50	정책 및 서비스 수급권 단위: 개인 대 가족 장민선(한국법제연구원)
종합토론	14:50~15:20	최선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슬기(KDI 국제정책대학원)
쉬는 시간	15:20~15:40	

2부 서울가족사업 세미나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사회: 진미정(서울대학교) 15:40~16:50

시상	15:40~15:50	2021 서울가족사업 공모전 시상식
우수사례1	15:50~16:00	코로나 시기의 소상공인 가족관계 지원 프로그램 개발 강진아, 전현정, 장유경(도봉구가족센터)
우수사례2	16:00~16:10	포스트코로나시대, 1인가구 심리방역 프로젝트 이진선(동대문구가족센터)
우수사례3	16:10~16:20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 간의 소통프로그램 장경익(서울중구가족센터)
종합토론1	16:20~16:30	다양한 가족 수용성 증진을 위한 성인지관점 가족사업 방향 제언 김숙이(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종합토론2	16:30~16:40	팬데믹 이후, 서울가족사업 현장의 변화흐름 및 방향 손서희(숙명여자대학교)
질의응답	16:40~16:50	플로어 질의응답

한국가족정책학회 총회 17:00~17:30

Contents

1부. 한국 가족의 변화와 진보 사회보장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제발표	한국가족, 어디로 가나? : 가족변화의 압축성과 급진성 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김혜영	9
	혐오·갈등에서 애정·연대로: 젠더와 가족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재언	25
	세대와 가족: 세대간 형평과 가족의 지속가능성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한준	45
	일·생활 균형의 가치와 전략적 선택 변화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진미정	59
	정책 및 서비스 수급권 단위: 개인 대 가족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장민선	71
종합토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선영, KDI 국제정책대학원 최슬기	83

2부. 서울가족사업 세미나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사례발표	코로나 시기의 소상공인 가족관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도봉구가족센터 센터장 강진아, 사무국장 전현정, 가족통합지원2팀 장유경	87
	포스트코로나시대, 1인가구 심리방역 프로젝트 “동일이를 부탁해” 동대문구가족센터 총괄팀장 이진선	103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 간의 소통프로그램 “서로 돌봄, 함께 돌봄” 서울중구가족센터 사무국장 장경임	111
종합토론	다양한 가족 수용성 증진을 위한 성인지관점 가족사업 방향 제언 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숙이	123
	팬데믹 이후, 서울가족사업 현장의 변화흐름 및 방향 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교수 손서희	129



1부

한국 가족의 변화와 진보

사회보장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좌장: 손서희(숙명여자대학교)

주제발표 1

한국가족, 어디로 가나? : 가족변화의 압축성과 급진성

김혜영

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한국가족, 어디로 가나? : 가족변화의 압축성과 급진성

김혜영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가족변동의 시기와 동학
- III. 한국가족, 어디로 가나?
- IV. 가족변동의 사회적 결과들
- V. 가족변화 함의와 정책 방향

I. 들어가는 말

■ 변화하는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우려와 담론들

- 초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우려
- 돌봄 공백과 돌봄의 사회화를 둘러싼 다양한 담론
- 가족도덕과 규범을 둘러싼 가치 갈등
- 개인갈등 및 부적응의 문제

■ 가족이란 무엇인가?:

- 가족은 신화와 현실 사이에 놓여 있음
- 변화하는 사회에서 가족이 어떻게 변화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가족’이라는 것 자체가 공과 사의 사회적 혼혈아이며, 공(公)과 ‘사(私)’의 경계는 유동적으로 재구성된다” 푸코(Foucault, 1994)

■ 변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변화의 속도와 이의 대응 기제가 중요

II. 가족변화의 시기와 동학: 언제, 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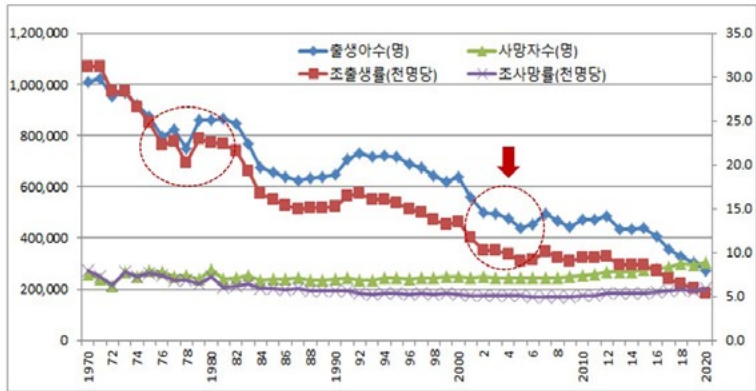
가족변화의 이론적 자원들

- 사회변동이론과 가족 변화
 - 산업화와 핵가족
 - 자본주의 사회와 가족의 계급별 특징
 - 가족사적 접근들
 - 후기산업사회와 포스트모던 가족
- 인구변천과 가족
 - 고전인구론
 - 1차 인구변천과 2차 인구변천이론

II. 가족변화의 시기와 동학: 언제, 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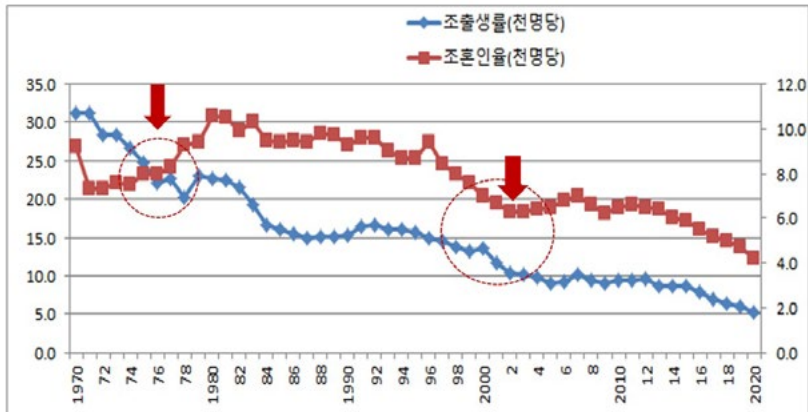
한국가족변화의 시간적 맥락

(그림 1) 출생아수(조출산율)와 사망자수(조사망률)의 추이(1970~2020년)



출처: 통계청(2021).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그림 2) 조혼인율과 조출생율 추이(1970~2020년)



출처: 통계청(2021).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 합계출산율은 이미 1983년 2.06명 1984년 1.74로 인구대체 수준 이하로 하락
- 1962년 산아제한정책 공표, 1990년 인구질향상 정책으로 전환, 1996년 산아제한 정책 폐기

II. 가족변화의 시기와 동학: 언제, 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2000년도를 전후하여 한국사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1997년 IMF 경제위기
→ 권위주의적 발전주의 국가와 작별, 신자유주의 체제로 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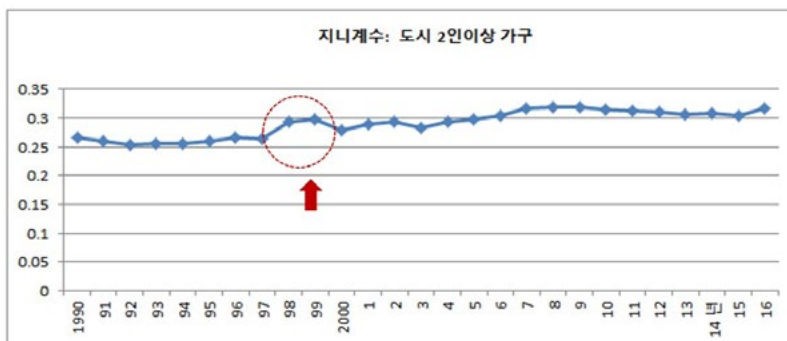


- 신자유주의 “1970년대 이후 서구에서 나타난 자본주의 축적위기에 대응하는 자본과 정부의 정치경제 프로젝트”이며 “자본의 축적전략과 정부정책, 사상과 이론 및 통치성이 결합된 것”(김경필, 2019)

➢ 양극화 심화와 고용불안정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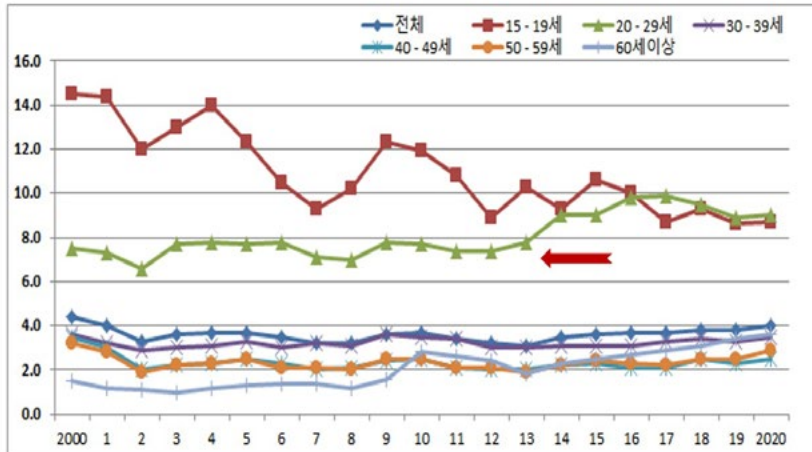
- 경제위기 직후: 고용위기와 함께 임금불평등 OECD 국가내 최고 수준(전병유, 2013)

(그림 3) 지니계수의 변화 추이(1990~2016년)



자료: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 #content-group (검색일 2021.10.21.)

(그림 4) 연령별 실업율의 변화 추이(2000~2020년)



자료: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102S&vw_cd=MT_TM2_TITLE&list_id=B80_01_03&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TM2_TITLE&h=%252FeasyViewStatis%252FcustomStatisIndex.do (검색일 2021.10.21.일)

II. 가족변화의 시기와 동학: 언제, 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88만원 세대', '삼포세대', 'N포 세대' 신조어 등장

➢ 개인화 부상

▪ 신자유주의는 “시장 교환을 모든 인간행동의 지침으로 작동하면서, 앞서 유지되던 모든 윤리적 신념들을 대체할 수 있는 윤리 그 자체”로 --- “신자유주의는 시장거래의 범위와 빈도를 최대화하면, 사회적 옹호 최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인간 행동을 시장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 (하비, 2007: 16-17)

-->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권력 재생산에 협조하게 하는 담론, 실천, 기구로 기능
경계와 시장, 경쟁, 새로운 계산체계 등이 사고와 행동의 주요한 준거체계로 작동

--> 신자유주의적 통치는 개인들을 자기계발과 혁신의 주체로 호명함으로써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기보다는 개인의 조건과 능력의 문제로 환치시킴

▪ 도달할 수 없는 자기혁신과 자기계발의 부담을 안고 무한경쟁적 시장과 조우

--> 특정의 계층 배경이나 외부 지원 없이는 노동시장의 요구에 자신의 일대기를 조정해야만 생존 가능한 사회

--> 사적 영역의 식민화, 신자유주의 시장질서에 내파되는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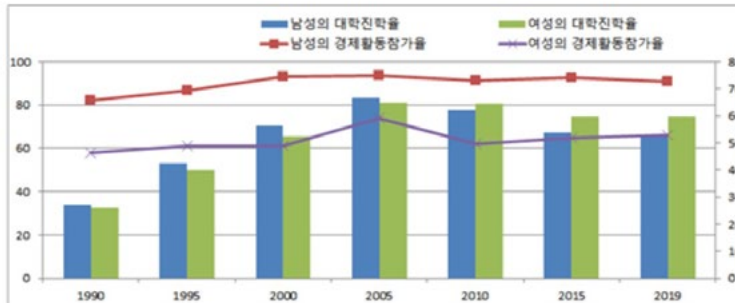
II. 가족변화의 시기와 동향: 언제, 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젠더관계 균열

▪ IMF 위기 이후 남성일인 생계부양자 가족모델의 실효성 약화

'가정에만 전념하겠다'	남성 1988년 25.4%, 1998년 11.6%, 2019년 7.0%
	여성 17.5%, 8.5%, 4.6%
'가정에 관계없이 취업하겠다'	남성 1988년 8.4%, 1998년 23.1%, 2019년 60.3%
	여성 10.8%, 24.7%, 62.5%

(그림 5) 성별 대학 진학률과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주: 1) 대학진학률의 경우 2010년까지는 대학합격자 기준이며, 2011년부터는 대학등록자 기준임.
 자료: 교육부, 「교육기본통계」, 각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III. 한국 가족, 어디로 가고 있나?

1. 가족구조와 형태의 변화

<표 1> 주요 가구형태 변화, 198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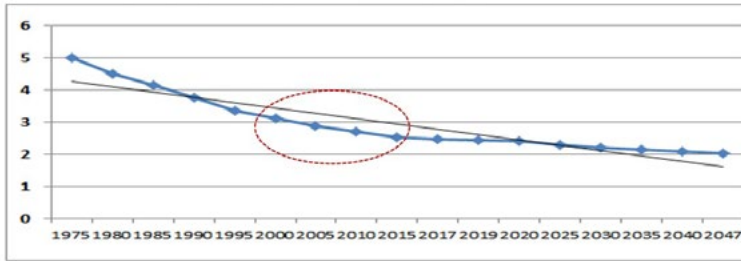
(단위: %)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부부	6.0	7.1	8.3	10.8	12.3	14.2	15.4	15.6	15.5	15.9	16.3	16.7
부부+자녀	53.0	52.8	51.9	50.4	48.2	42.2	37.0	32.2	32.0	31.3	30.6	29.8
한부모+미혼자녀	9.3	8.9	7.8	7.4	7.9	8.6	9.2	10.8	10.3	10.2	10.1	9.9
부부와 양(편)친	0.6	0.7	0.8	0.9	1.0	1.0	0.9	0.8	0.8	0.7	0.7	0.7
부부와 양(편)친과 자녀	9.8	9.1	8.4	6.8	5.7	4.5	3.8	3.0	3.0	2.7	2.5	2.2
조부모와 손자녀	-	-	-	0.3	0.3	0.4	0.7	0.6	0.6	0.6	0.6	0.5
기타가족	21.3	21.4	22.8	23.4	24.7	29.2	33.0	37.1	38.0	38.6	39.2	40.7

자료: 통계청, 「인구조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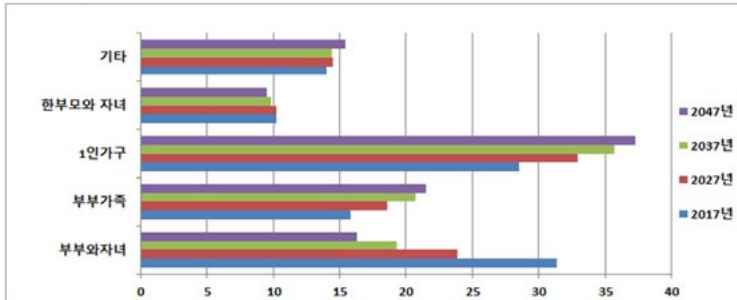
- 세대구성의 단순화, 가구 크기의 감소, 기타 가족의 증가
- 1-2인 가구의 비중이 절반에 가까워져 가구의 미니멀화
- 특히 1인 가구는 '19년 614만 8천 가구로 전체 가구 중 가장 큰 비중(30.2%)

(그림 7) 평균 가구원수의 변화와 미래 전망(1975~2047)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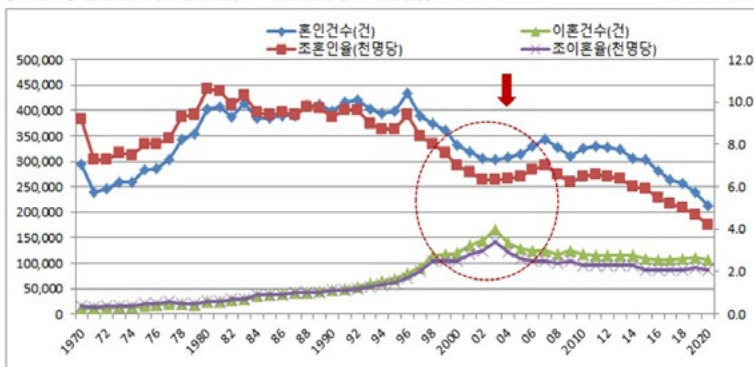
(그림 8) 주요 가구형태 변화 추이 전망, 2017-2047 (단위 : %)



기타: 부부+미혼자녀+부(모), 3세대이상 기타, 가구주+형제자매(기타 친인척), 1세대 기타, 부부+부(모), 부부+자녀+ 부부형제자매, 조부(모)+손자녀, 2세대 기타 등
출처: 통계청(2019), 「장래가구특별추계:2017-2047」, 보도자료: 4p

2. 가족행동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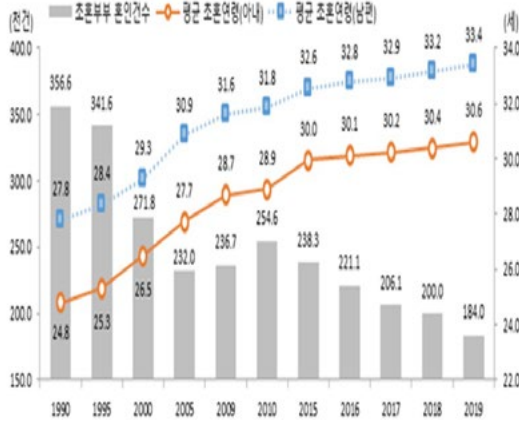
[그림 9] 혼인건수(초혼인율)와 이혼건수(조이혼율), 1970- 2020 (단위 : 건, %)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 2000년을 전후하여 혼인율 감소, 이혼율 증가가 맞물려 발생. 주요한 전환의 시기
- 2000년대 후반부터 이혼율은 정체, 혼인율은 지속 하락
- 초혼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 따라서 만혼의 경향과 함께 모의 출산연령도 상승

[그림 10] 평균 초혼연령 및 초혼부부 혼인건수, 1990-2019
(단위: 세,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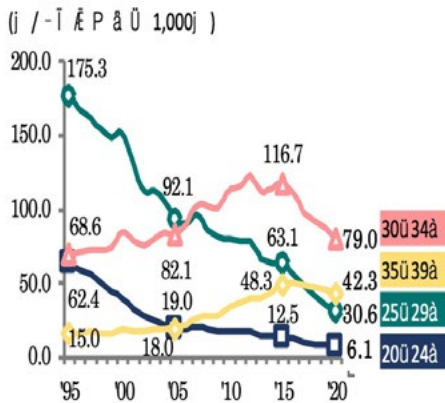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도자료: 14

[그림 11]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200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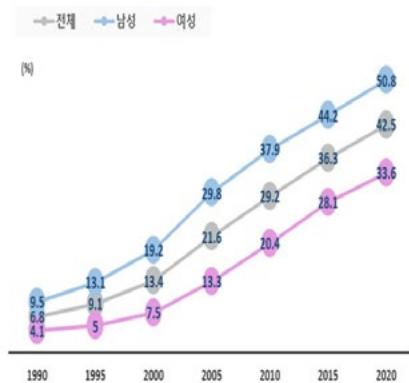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1), 「2020년 출생통계」: 7p, 5p

[그림 12] 모(母)의 주요 연령대별 출산율, 1995-2020



자료: 통계청(2021), 「2020년 출생통계」

[그림 13] 성별 30-39세 미혼인구 비중, 199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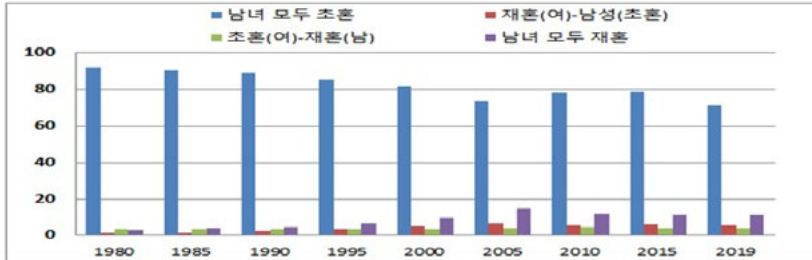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1),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 결과: 인구, 가구 기본항목」

- 만혼화의 영향으로 주출산연령대는 25-29세에서 30-34세로 이동. 30-34세 출산여성은 지속 상승한 뒤 정체
- 미혼인구는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 특히, 30대는 2015년 36.3%에서 2020년 42.5%로 가장 크게 증가(6.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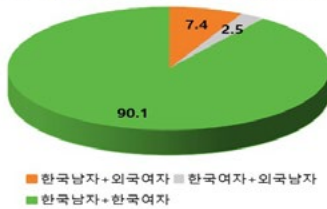
• 배우자 선택과 결혼방식의 다양화

- 초혼 비중의 감소, 재혼 비중의 증가. 특히 여성재혼-남성 초혼은 그 반대의 경우보다 비중 높음
- 여성 연상혼 증가 전체 초혼 가운데 18.5%



외국인과의혼인건수추이(99~19)

- 2000년을 전후로 국제결혼의 가파르게 증가세, 현재는 하향정체
- 주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아내의 비중이 압도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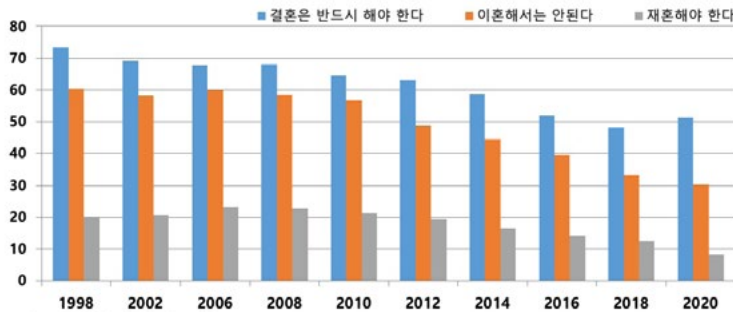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0), 「2019년 다문화 인구통계」

II. 한국 가족, 어디로 가고 있나?

3. 가족의식 및 규범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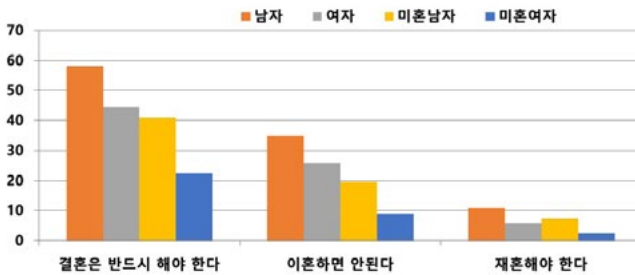
[그림 12] 혼인, 이혼, 재혼에 대한 태도, 1998-202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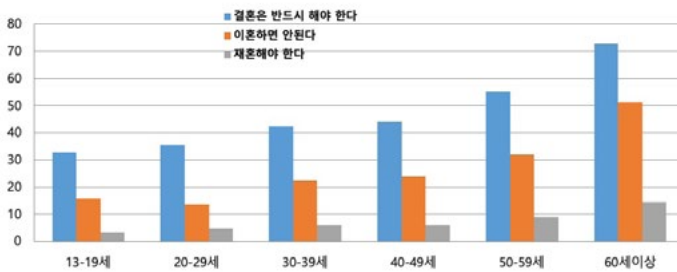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연도

- 결혼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는 지속적으로 감소
- 이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크게 완화
- 재혼에 대한 수용도는 등락을 보여주나, 지속적으로 유보적 태도

[그림 12-1] 혼인, 이혼, 재혼에 대한 태도: 성별, 결혼지위별 차이 2020



[그림 12-2] 혼인, 이혼, 재혼에 대한 태도: 연령별 차이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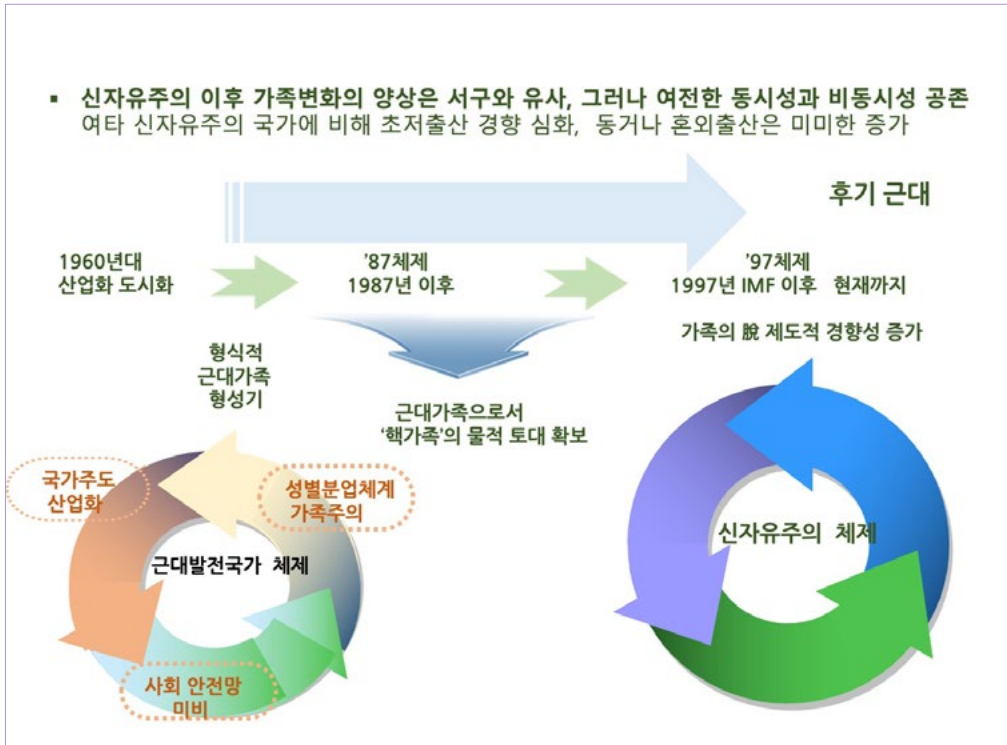


▪ **가족관련 태도: 가족 다양성 수용도 완만하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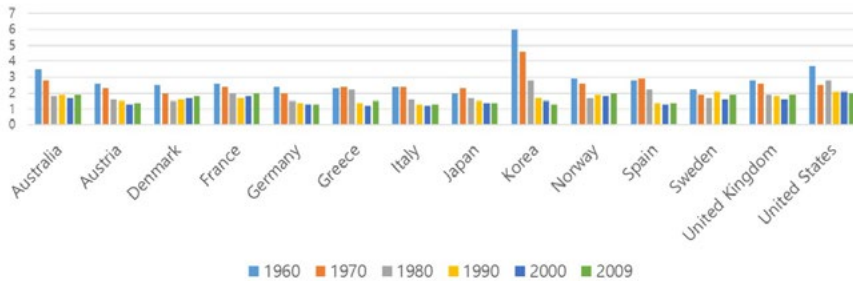
- 혼인,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 69.7% 동의 (20. 여성가족부)
-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 47.5% (20대 동의율, '20 사회조사, 통계청)
-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 71.0% 동의(20 사회 조사, 통계청)
-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30.7% 동의(20년 사회 조사, 통계청)
- (08) 21.5% → (10) 20.6% → (12) 22.4% → (14) 22.5% → (16) 24.2% → (18) 30.3% → (20) 30.7%

4. 가족변동의 특징: 압축성, 급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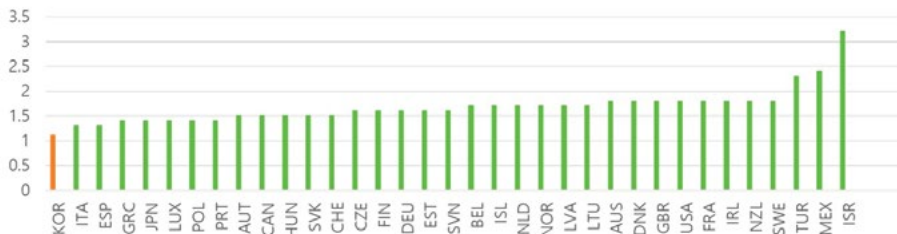
- 압축적 근대화: 압축 성장으로 근대, 반근대, 후기 근대라는 삼중구조가 동시에 공존
- 근대가족의 특성은 '87년 체제 이후 완성(김혜영, 2016)
- 70년대~80년대까지 한국가족은 형식적으로는 근대가족의 외양을 보이고 있으나, 남성 생계부양자의 물적 토대가 불완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념형으로 직계부계가족 원리가 대중적으로 수용
 - 발전주의 국가체제 하에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을 시작으로 국가에 의한 가족의 복고적 기능 소환 가족에 대한 이념적 통제 강력('동원된 가족주의')영향력 유효
 - 1987년 이후 남성의 실질임금 상승에 힘입어 핵가족 단위의 소비 및 여가활동 급증, 동시에 외식 및 구 소비재의 발달로 소비단위로서 부부와 자녀가족이 실질적으로 부상 그러나 10여년 만에 IMF와 이후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의해 가족은 심층적 변화



[그림 13] OECD 주요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의 변화: 1960-2009년



[그림 13-1] 최근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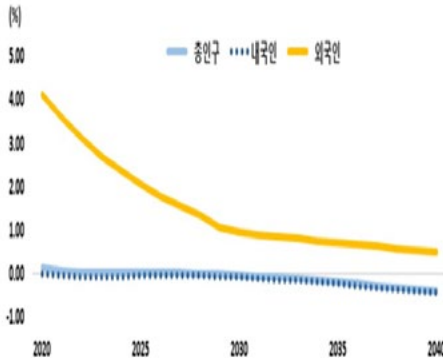


출처: OECD. 2010. 2016년 Family Database(한국, 2017).

IV. 가족변화의 사회적 결과들

1. 사회재생산 체제의 약화: 인구성장이 멈춰진 사회, 부양부담의 그늘로?

〈그림 5〉 인구성장률, 2020-2040년



〈그림 6〉 내국인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2017-2040년



출처: 통계청(2020),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2017-2047」, 보도자료

2. 가족의 다양화와 위기의 계층화

▪ 가구형태와 가족 삶의 다양성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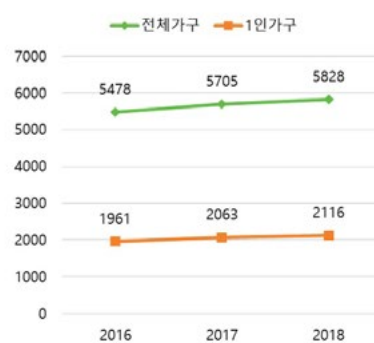
: 자율적 선택의 보장에 따른 개인화가 갖는 이중적 효과로 시장지위가 열악한 경우 빈곤 위험 증가. 가구유형별 빈곤율 차이

- ✓ 한부모 가족 빈곤율 35.3% (전체 가구 12.6%)
- ✓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소득 평균의 36.3% 수준에 불과(‘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 유형별 빈곤율



1인 가구 연평균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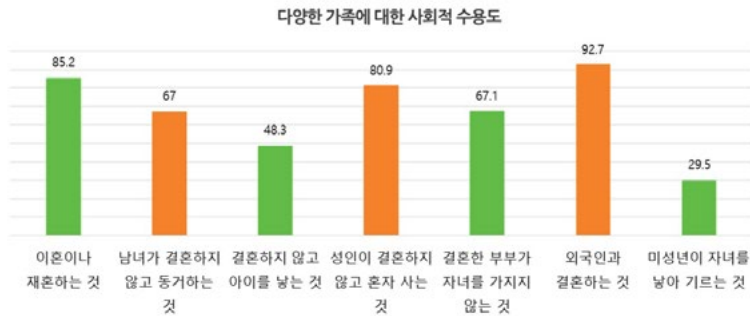


주) 빈곤: 공동생활공동체 가처분소득 50% 미만, 가구 가중치 적용
 자료: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황정미 외(2019) 가족평등수준 측정 및 활용 방안 연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

▪ 가구형태와 가족 삶의 다양성 증가에 따른 편견과 배제 문제

-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있음 90.5% ('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 : 91.4% ('18년 KBS방송문화연구소)
- * 결혼이민자, 귀화자 차별 경험 : 본인 '18년 30.9%, 자녀 '18년 9.2%
- * 한부모 가족의 약 16%가 차별 경험('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2020.7.1), 2020년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V. 가족변화의 함의와 주요 정책과제

재생산체계의 교란과 저출산

만혼, 저출산 추세와 전통적 가족기능 상실

가족다양화와 돌봄공백

2인 생계부양자 가족과 1인가구 및 한부모가구 증가가 갖는 이중적 함의 → 다양성증가와 기능 약화

가족/사적 영역에 대한 정책개입 확장

한부모, 미혼부/모 등 특정 가족을 넘어 보편화된 돌봄정책 요구 → 보편적인 사회정책으로 가족정책 부상

-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근원지로서의 가족: 가족 위험의 평준화

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 포용적 사회정책의 확장

공공정책 영역
개인의 삶과
일상 영역 포섭

근로자 개인의 일터 및 노동과정,
가족생활 등 개인의 일상 삶 전반에 걸친 “재구조화”
→ 포용적 가족/사회정책 수립

가족 형태적, 내용적
다양성 수용 인정
법, 제도, 문화 조성

- 다양한 유대관계 인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특정 형태 가족 이념 근거 **차별적 법제도 개선**
- 자택출산, 미혼부모자녀 등 불합리한 **출생신고제도 개선**
- 혼인을 통한 출산만을 정당화하는 사회문화, 제도개선, 다양한가족에 대한 **차별모니터링과 반편견 교육 강화**
- 생애주기별 돌봄 ‘**보편적 가족지원**’ 정책 강화
- 부모 부양의 **일차적 주체는 가족(자녀)이 아닌 사회**
- 청년, 여성 일자리 확대를 통한 **가족 사회경제적 토대 강화**

주제발표 2

힘오·갈등에서 애정·연대로 : 젠더와 가족

유재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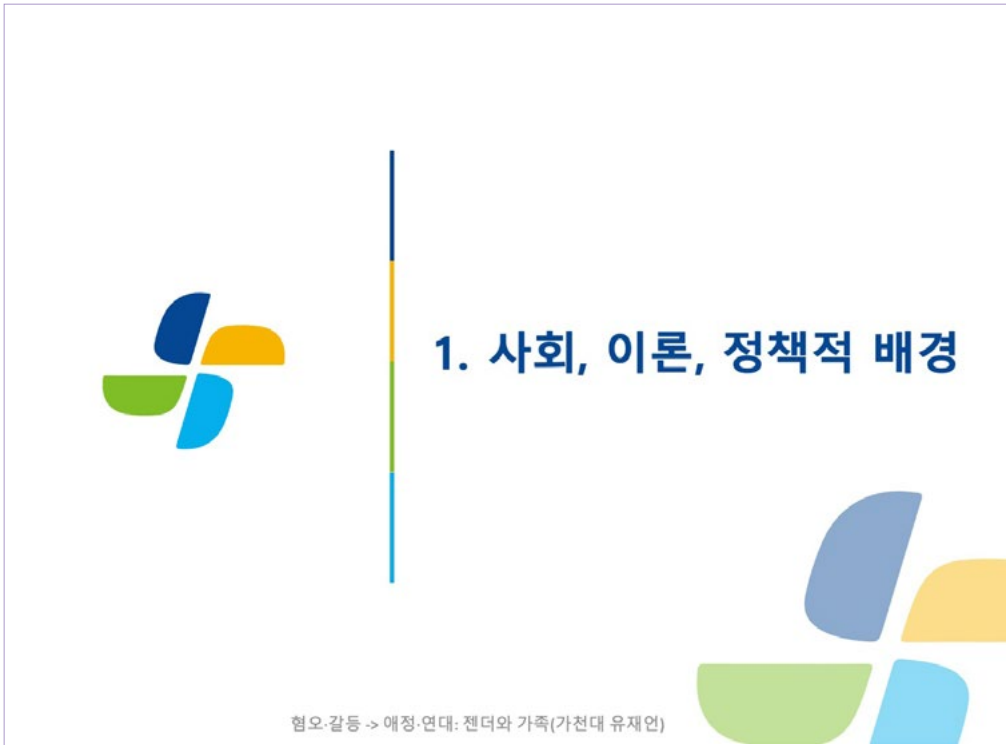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Contents

- 1 사회, 이론, 정책적 배경
- 2 의제1: 청년 비혼, 결혼, 출산, 양육
- 3 의제2: 전생애 성별 격차, 취약계층
- 4 의제3: 전생애 성적권리





1. 사회, 이론, 정책적 배경



갈등과 혐오...갈라선 대한민국[광화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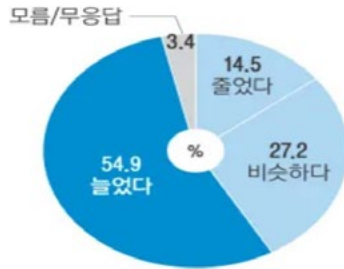
[사실]젠더문제 대처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줄여야

[사는 이야기] 더 좋은 세상, 성평등을 향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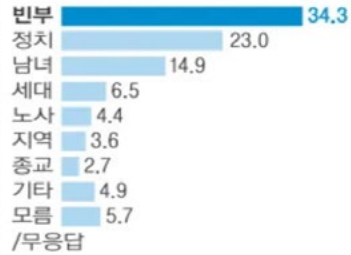
"페미니즘에서 패밀리즘으로..젠더갈등 줄이겠다"

1. 사회, 이론, 정책적 배경

현 정부 출범 이후 사회갈등 정도



현 정부 출범 이후 심각해진 사회갈등 영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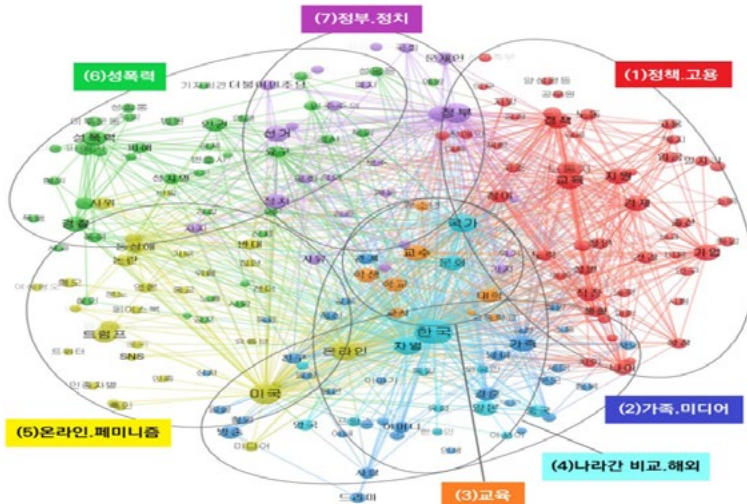
가장 심각한 영역 '빈부'
41% "정치가 해결해야"
20대 "남녀 갈등 늘었다"
60대 "정치 갈등" 세대 차

출처: 경향신문(2021. 10. 6). 창간 75주년 여론조사.

혐오·갈등 -> 애정·연대: 젠더와 가족(가천대 유재언)

1. 사회, 이론, 정책적 배경

젠더 이슈 관련 뉴스 키워드 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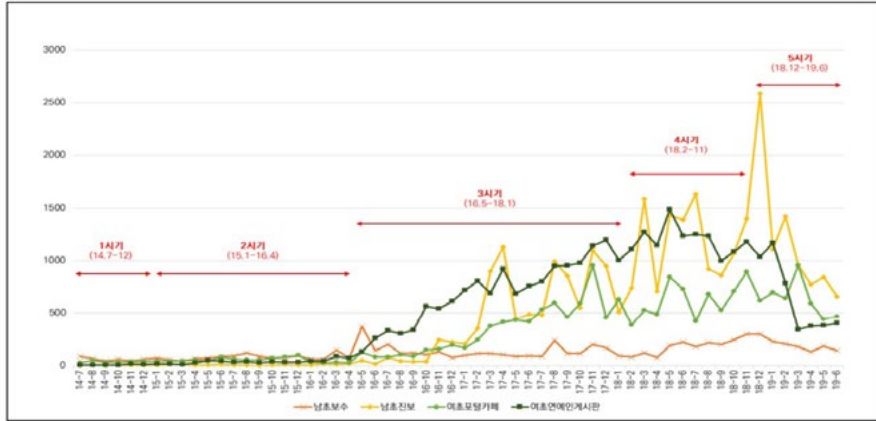
출처: 마경희 외(2020). 청년관점의 '젠더갈등' 진단과 포용국가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혐오·갈등 -> 애정·연대: 젠더와 가족(가천대 유재언)

1. 사회, 이론, 정책적 배경

시기별 남초·여초 커뮤니티 젠더 이슈 게시글 수 추이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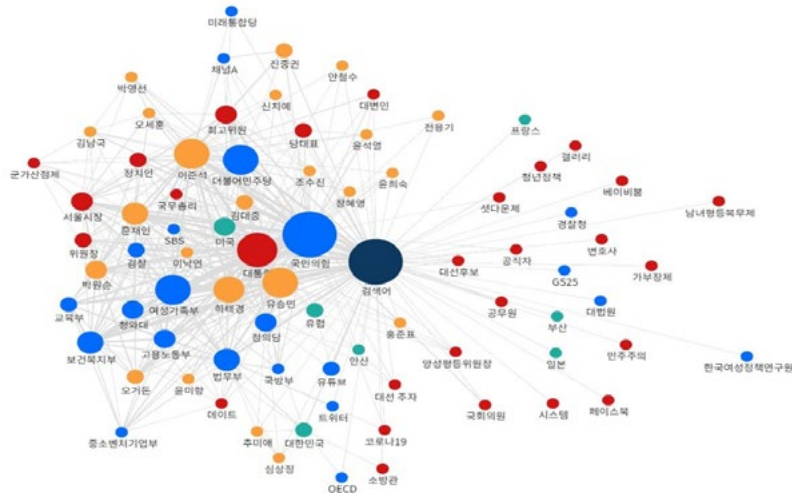


출처: 마경희 외(2020). 정년관점의 '젠더갈등' 진단과 표용국가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혐오·갈등 -> 애정·연대: 젠더와 가족(가천대 유재언)

1. 사회, 이론, 정책적 배경

2019.7.~2021.10. 뉴스 속 '젠더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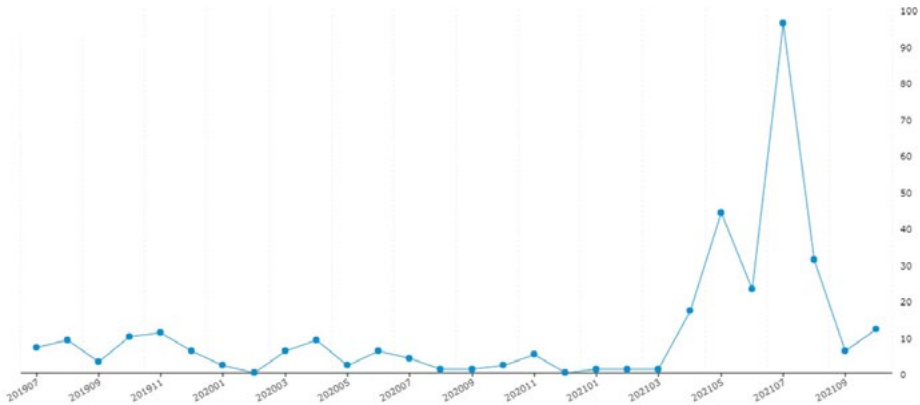


출처: 빅카인즈(뉴스빅데이터 분석)에서 2019.7.1.~2021.10.27. '젠더갈등' 을 검색어로 했을 때 나온 325건의 뉴스 내 빈출 단어(직접 분석).

혐오·갈등 -> 애정·연대: 젠더와 가족(가천대 유재언)

1. 사회, 이론, 정책적 배경

2019.7.~2021.10. '젠더갈등' 월간 뉴스 건수



출처: 빅카인즈(뉴스빅데이터 분석)에서 2019.7.1.~2021.10.27. '젠더갈등' 을 검색어로 했을 때 나온 325건의 뉴스 건수(직접 분석).

혐오·갈등 -> 애정·연대: 젠더와 가족(가천대 유재연)

1. 사회, 이론, 정책적 배경

2019.7.~2021.10. '젠더갈등' 뉴스 연관어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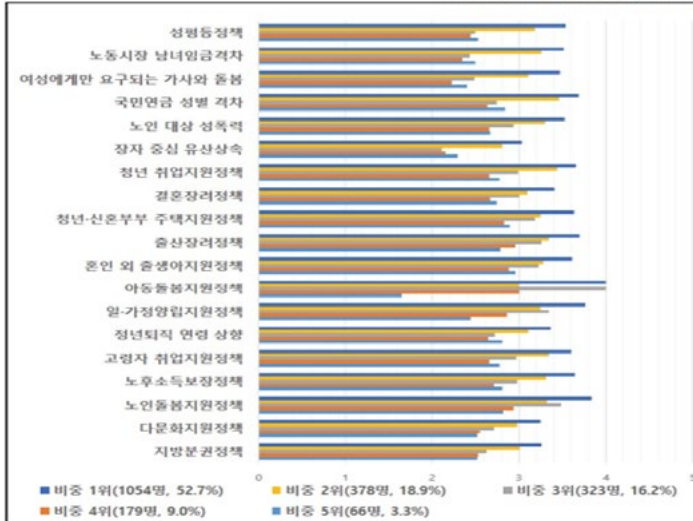
출처: 빅카인즈(뉴스빅데이터 분석)에서 2019.7.1.~2021.10.27. '젠더갈등' 을 검색어로 했을 때 나온 325건의 뉴스 속 연관어 분석 결과.

혐오·갈등 -> 애정·연대: 젠더와 가족(가천대 유재연)

1. 사회, 이론, 정책적 배경

정책 필요성 유형화(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국민 2,000명

(단위: 1(강한 반대)~5(강한 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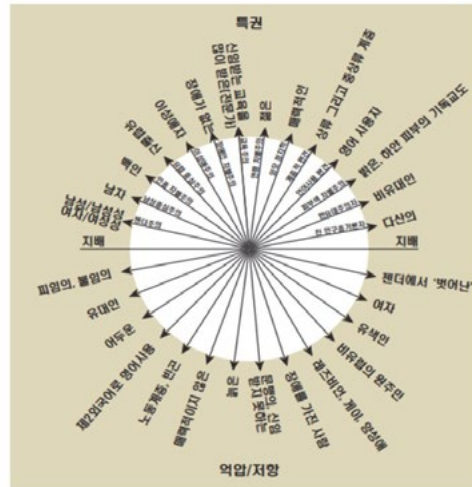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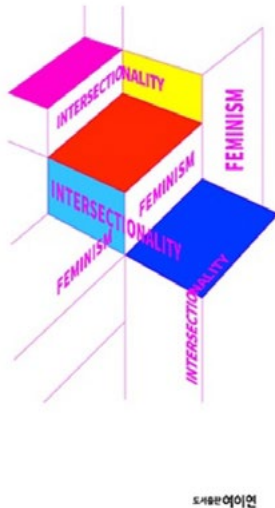


출처: 유재언 외(2019). 젠더 관점에서의 인구정책 분석-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혐오·갈등 -> 애정·연대: 젠더와 가족(가천대 유재언)

1. 사회, 이론, 정책적 배경

교차성 x 페미니즘
INTERSECTIONALITY x FEMIN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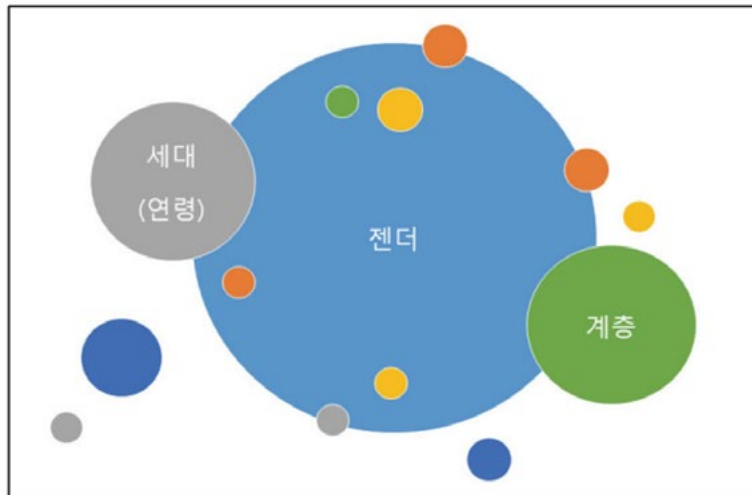


출처: 정재원(2020). 대학 교양 여성학 수업에서 특권 다루기. 교양 교육 연구. 14(6). 97-115.

혐오·갈등 -> 애정·연대: 젠더와 가족(가천대 유재언)

1. 사회, 이론, 정책적 배경

본 연구의 개념적 분석틀: 교차성



출처: 유재연 외(2019). 젠더 관점에서의 인구정책 분석-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혐오·갈등 -> 애정·연대: 젠더와 가족(가천대 유재연)

1. 사회, 이론, 정책적 배경

젠더 관점에서의 인구정책 분석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적 제언

- 원칙: **사람 중심, 성평등, 포괄적** 사회정책을 향해
- 법률 개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법
- 방향성: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성평등정책 간 **연계와 협력**
- 목표: 성평등을 포함 모든 구성원의 포용과 평등 구현으로 확대
- 대응 방안 마련의 전제조건: **성별 격차 실태 면밀한 진단**
- 사회현상·정책태도: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
- **젠더화된 생애과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 정책 수립·시행
- **청년, 젠더, 계층의 교차성**, 그리고 정책
- **노년, 젠더, 섹슈얼리티, 계층의 교차성**, 그리고 정책

출처: 유재연 외(2019). 젠더 관점에서의 인구정책 분석-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혐오·갈등 -> 애정·연대: 젠더와 가족(가천대 유재연)

1. 사회, 이론, 정책적 배경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체계도



출처: 관련부처합동(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혐오·갈등 -> 애정·연대: 젠더와 가족(가천대 유재언)

1. 사회, 이론, 정책적 배경

- 의제1: **청년 비혼자**
 - 2030이성혐오(연애 감소, 인공임신중절 증가)
 - 비혼화·만혼화(혼인시장)
 - 장기적으로 돌봄의 구조 대전환 필요(가족 → 사회)
- 의제2: **결혼·출산·양육 행태 및 가치관**
 - 결혼 및 **출산**(불충분한 좋은 일자리 경쟁, 경력단절, 주거 및 지역불평등)
 - **난임 및 고령출산**
 - **가치관(예: 자녀성선택)**
- 의제3: **자원·시간 배분의 성별 격차(경력단절, 일가정갈등, 소득, 국민연금, 상속 등), 가족갈등(고부, 장서)·이혼(황혼)**
- 의제4: **취약계층-다문화가정·한부모·미혼부모, 대도시·지방 등**
- 의제5: **전생애 성적권리(기본적 욕구, 안전, 폭력)**

출처: 관련부처합동(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혐오·갈등 -> 애정·연대: 젠더와 가족(가천대 유재언)



2. 청년 비혼, 결혼, 출산, 양육



혐오·갈등 -> 애정·연대: 젠더와 가족(가천대 유재언)



2. 청년 비혼, 결혼, 출산, 양육

정치 양극화·청년 실업이 부추긴 남녀 혐오

일상화된 남혐·여혐 ... “혐오 표현 들었다” 남 66%, 여 74%



출처: 중앙일보 정중훈, 백희연, 편광현, 박건(2021.7.22). 정치 양극화·청년 실업이 부추긴 남녀 혐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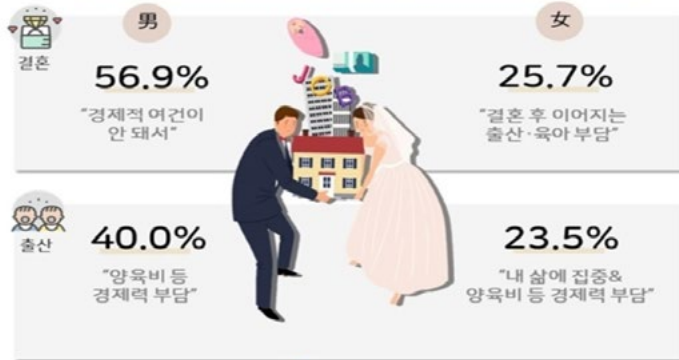
혐오·갈등 -> 애정·연대: 젠더와 가족(가천대 유재언)

2. 청년 비혼, 결혼, 출산, 양육

요즘 남녀의 비혼(非婚) 결정 이유,
 女 '결혼 후 이어지는 출산·육아 부담' 男 '경제적 여건'

조사대상 : 성인남녀 849명 | 조사기간 : 21년 9월 15일~22일

Q.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Incru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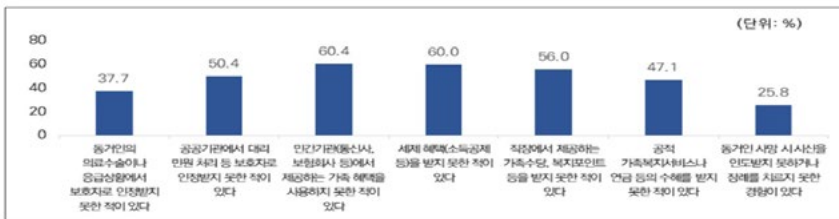
출처: 비욘드포스트(2021.9.27), 남녀 비혼 결정 이유, 女 '출산·육아 부담' 男 '경제적 여건'

혐오·갈등 -> 애정·연대: 젠더와 가족(가천대 유재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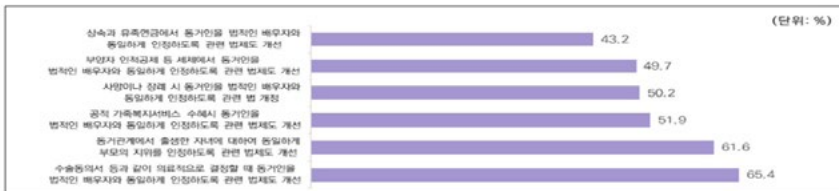
2. 청년 비혼, 결혼, 출산, 양육

'비혼 등거' 평균 나이 38.8세... "법률혼보다 만족도 높아"

등거하는 이유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 만족도 높지만 "제도적으로 인정 못 받아" 불편도



등거생활 중 어려움 경험 - 현재 등거하는 경우(전체)



등거가족지원정책 필요성에 대한 동의 비율

출처: 뉴스1 전준우(2021.9.15.), '비혼 등거' 평균 나이 38.8세... "법률혼보다 만족도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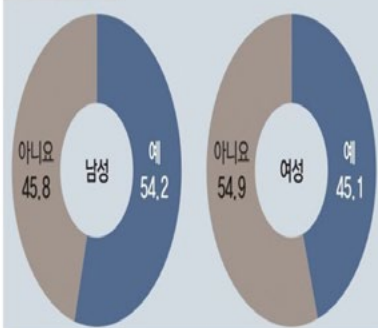
혐오·갈등 -> 애정·연대: 젠더와 가족(가천대 유재언)

2. 청년 비혼, 결혼, 출산, 양육

30대 미혼 남녀 설문조사 단위: %

기간: 10월 12~15일
 대상: 30대 미혼 남녀 548명(남성 295명, 여성 253명)
 방법: 접근리아 모바일 설문조사
 자료: 접근리아

결혼할 계획인가?



결혼 계획이 없는 이유는? (이하 복수 응답 가능)

결혼할 계획이 없다고 답한 남녀 274명 대상.



미혼으로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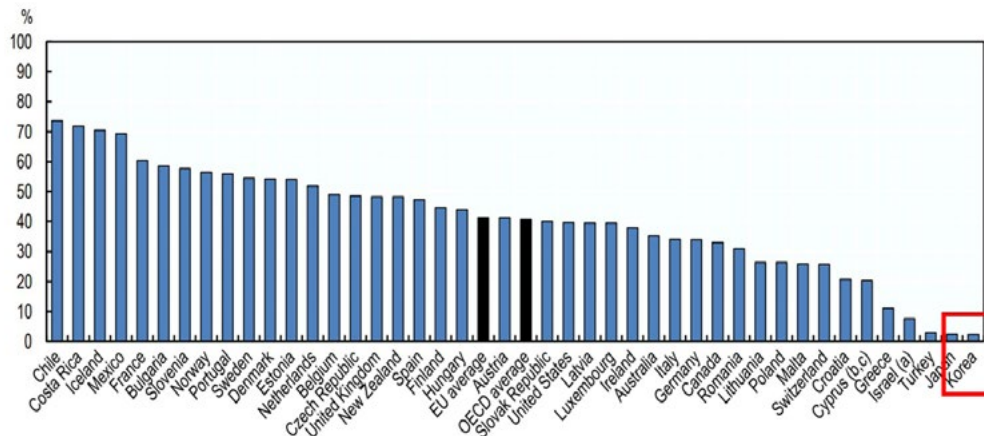


출처: 동아일보 구독교(2021.10.23). 30대男 절반이 '삼미남'... "결혼? 내 행복에 투자할래요".

혐오·갈등 -> 애정·연대: 젠더와 가족(가천대 유재언)

2. 청년 비혼, 결혼, 출산, 양육

Proportion (%) of all births where the mother's marital status at the time of birth is other than married, 2018



출처: https://www.oecd.org/els/family/SF_2_4_Share_births_outside_marriage.pdf

혐오·갈등 -> 애정·연대: 젠더와 가족(가천대 유재언)

2. 청년 비혼, 결혼, 출산, 양육



미혼남녀 2030세대 68% “비혼 출산 찬성”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는 지난 달 23~24일 미혼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비혼 출산 관련 조사 결과 응답자 중 68.3%가 ‘비혼 출산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7일 밝혔다.

비혼 출산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공 수정 등을 이용해 아이를 낳는 것을 뜻한다.

비혼 출산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한 이들을 성별로 보면 여성(76.0%)이 남성(60.7%)보다 비혼 출산에 대해 보다 더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비혼 출산에 찬성하는 이들은 그 이유로 △개인의 자유(60.5%) △혼인여부와 상관 없이 좋은 보호자가 될 수 있음(16.6%) △다양한 가족 구성 인정(14.6%) 등을 꼽았다.

출처: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907010004189>

혐오·갈등 -> 애정·연대: 젠더와 가족(가천대 유재언)



3. 전생애 성별 격차, 취약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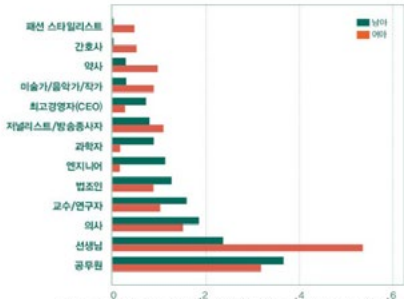
혐오·갈등 -> 애정·연대: 젠더와 가족(가천대 유재언)



3. 전생애 성별 격차, 취약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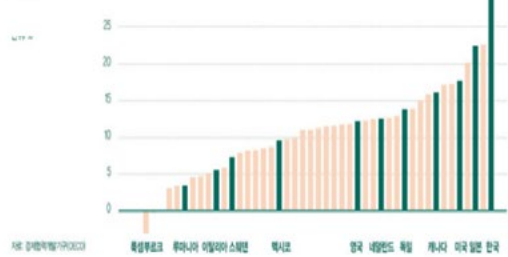
내 (첫째) 아이가 갖기 원하는 직업

자료: Choi and Haeng, Demography, 2020



출처: 안거레21 김현철. 유아한 성격이 성평등을 앞당긴다.

그림4.



“청년여성 농업·농촌에 흥미 갖게 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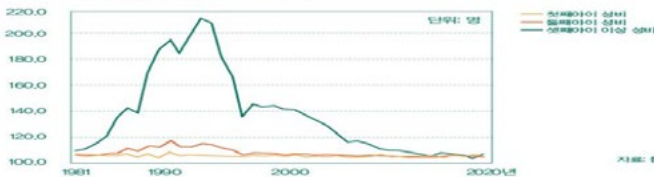
함께 살아가려면 남자들이 삶이 변해야 한다

출산 육아 가사는 여전히 여성의 몫
이 상태론 직장에서도 여성은 불평등
성평등 위해 남성의 가사 육아 확대돼야

혐오·갈등 -> 애정·연대: 젠더와 가족(가천대 유재언)

3. 전생애 성별 격차, 취약계층

여아 100명당 남아 출생률



자료: 통계청 인구총량 재구성

아들 부자집 고령빈곤 위험 더 크다...생애노동시간도 더 길다

김경국 경제부총리 비서관 1저자 참여
SCI급 고령화경제학 국제학술지 실려
아들 1명 당 노동시간 16.8% 증가
은퇴가능성은 평균 6%포인트 감소해
“장가갈 때 최소 전세집” 관습은 여전히

[천자 칼럼] 여아 선호 시대?

남아선호가 사라진 것은 태아감별을 통한 낙태가 이제는 ‘비정상’이 된 데서도 알 수 있다. 2018년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도 ‘딸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응답(44%)이 ‘아들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응답(24%)의 두 배에 달했다. 아들은 키우기 힘든 데 반해 딸은 부모 말 잘 듣고 나중에 잘 모신다는 인식에 ‘딸바보’ 부모가 흔해졌다. 국내 입양아 중 여아 비율도 68%(2017년)로 월등히 높다.

혐오·갈등 -> 애정·연대: 젠더와 가족(가천대 유재언)

4. 전생애 성적권리

[김유민의 돋보기] 감출수록 음지로 가는 청소년 성문제

성경험 빨라지는데... 청소년 피임 터부시 [김유민의돋보기]

“학생한테 콘돔 안 팔아”...외면받는 청소년 성문제[축!]

“청소년 성소수자 괴롭힘, 무대응과 차별 조장 정책의 산물”

"미혼 한부모와 청소년부모, '비정상 가족' 편견 없앨 것"

모텔서 애 키우는 '청소년 한부모'...지원 추진

'수치심 없는 성교육'이 필요한 까닭, 여기에 있다

[리뷰] 넷플릭스 시리즈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

혐오·갈등 -> 애정·연대: 젠더와 가족(가천대 유재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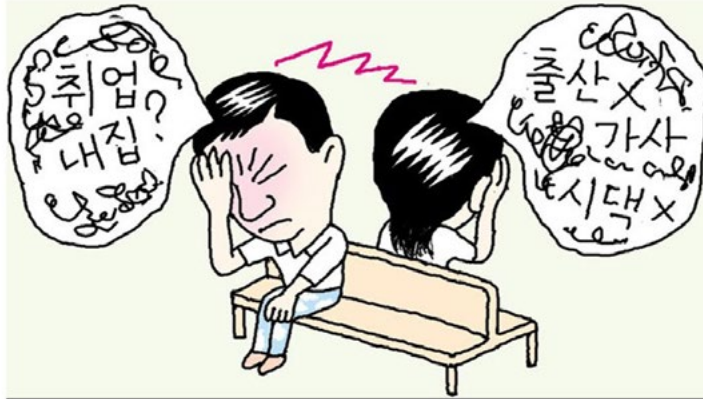
4. 전생애 성적권리

혐오·갈등 -> 애정·연대: 젠더와 가족(가천대 유재언)

4. 전생애 성적권리

MZ세대가 왜 섹스리스냐고? 번아웃됐기 때문

[만물상] 섹스리스 청년들의 슬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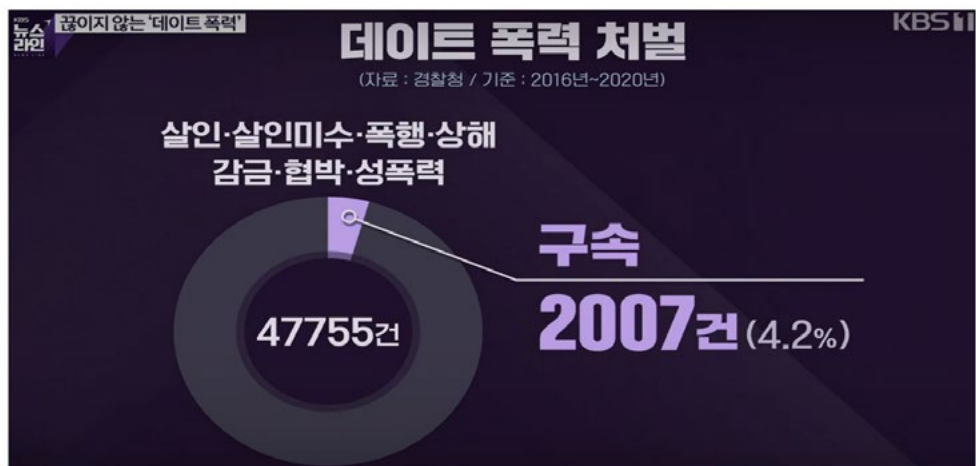


출처: 동아일보 김태훈(2021.7.5.). 섹스리스 청년들의 슬픔.

혐오·갈등 -> 애정·연대: 젠더와 가족(가천대 유재언)

4. 전생애 성적권리

[심층인터뷰] 끊이지 않는 '데이트 폭력'



출처: KBS(2021.10.15.). [심층인터뷰] 끊이지 않는 '데이트 폭력'. <https://news.v.daum.net/v/202110150014132307f0>

혐오·갈등 -> 애정·연대: 젠더와 가족(가천대 유재언)

4. 전생애 성적권리

부부 섹스리스 피해자 모임 참석기 출산율 낮추는 섹스리스

- 1년간 총 10회 미만 혹은 한 달에 1회 미만 성관계 없었다면 섹스리스 부부
- 출산율 낮추고, 외도로 이어질 수 있는 섹스리스 문제
- 10년간 부부 성교 네 차례, 심각한 젊은 섹스리스 부부들의 사례
- 3040 남성들의 발기부전, 성선기능저하증이나 이른 남성갱년기 의심해야

출처: 원간조선 하주희, (2021.6), 부부 섹스리스 피해자 모임 참석기: 출산율 낮추는 섹스리스.

혐오·갈등 -> 애정·연대: 젠더와 가족(가천대 유재언)

4. 전생애 성적권리

'애로부부' 사랑으로 위장된 폭력들

[양담소] "폭력 남편 맞서 저 대신 이혼 진행하는 아들, 괜찮을까요?"

가정폭력 생존자들 "도망쳐도 힘들어해도 돼요"



©여성신문

혐오·갈등 -> 애정·연대: 젠더와 가족(가천대 유재언)

4. 전생애 성적권리

임신중절수술 전후 정보 제공 '토닥' "낙태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만 가입할 수 있고 익명으로 운영, 수술 관련 정보부터 경험 나누는 공간도 운영

낙태 수술 한해 5만건...올바른 피임법은?

- ▣ 조사에 응답한 여성(10,000명) 중 성경험여성은 7,320명(73%), 임신경험 여성은 3,792명(38%)이었으며,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756명(성경험 여성의 10.3%, 임신경험 여성의 19.9%)으로 조사되었다.
 - 인공임신중절 당시 연령은 17세부터 43세까지 매우 다양하였고, 평균 연령은 28.4세(±5.71)로 나타났다.
 -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혼인상태는 미혼 46.9%, 법률혼 37.9%, 사실혼-동거 13.0%, 별거-이혼-사별 2.2%로 나타났다.
 - 인공임신중절을 하게 된 주된 이유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자녀계획(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이 각각 33.4%, 32.9%, 31.2%(복수응답)로 높게 나타났다.
 - 인공임신중절 방법으로는 수술만 받은 여성이 90.2%(682명), 약물 사용자는 9.8%(74명)이고, 약물사용자 74명 중 53명이 약물로 인공임신중절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 등에서 추가로 수술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술 시기는 대체로 임신초기(평균 6.4주, 12주 이하 95.3%)로 나타났으며, 평균 횟수 1.43회였다.
- ▣ 2017년 인공임신중절률은 4.6%, 인공임신중절건수는 약 5만 건으로 추정되며, 2005년 조사 이후 감소** 추세이다.
 - * 만 15-44세 여성인구 1,000명당 임신중절건수
 - ** (05) 29.8% (342,433건) → (10) 15.8% (168,738건) → (17년) 4.8% (49,764건)

난임, 원인 절반 남성이지만 지원 훨씬 못 미쳐

난임 원인, 여성-남성이 각각 40%
여성에 치우친 지원책, 남성 난임 해결 막아

혐오-갈등 -> 애정-연대: 젠더와 가족(가천대 유재언)

4. 전생애 성적권리

[김유민의 돋보기] 감출수록 음지로 가는 청소년 성문제

청소년들의 성경험은 마냥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질병관리청의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관계 경험률은 10년 사이 5.1%(2009년)에서 5.9%(2019년)으로 증가했다. 성경험이 있는 중1부터 고3 청소년을 기준으로, 성관계 시작 연령은 평균 13.6세(2018년 기준)였다. 2년 전 조사에서 고3 남학생의 경우 100명 중 15명(14.6%)꼴로, 고3 여학생의 경우 100명 중 7명(7.2%)꼴로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성관계 경험자의 피임 실천율은 58.7%밖에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성경험이 계획하지 못한 임신과 출산, 낙태로 이어지기도 한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15~19세 여성 출산 사례는 2016년 1907건, 2017년 1520건, 2018년 1292건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연간 1000건을 넘는다. 임신 12주 이후인 후기에 낙태 수술을 받는 비율은 훨씬 높았다.

출처: 서울신문 김유민(2021.10.21). 감출수록 음지로 가는 청소년 성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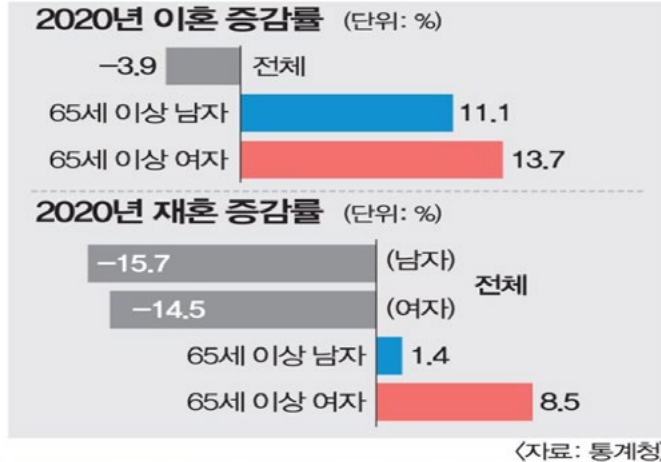
혐오-갈등 -> 애정-연대: 젠더와 가족(가천대 유재언)

4. 전생애 성적권리

“참느니...” “새출발...” 황혼 이혼·재혼 사상 최대

지난해... 전체 이혼·재혼은 감소세

입력 : 2021-09-30 04:06



출처: 국민일보 신재희(2021.9.30), “참느니...” “새출발...” 황혼 이혼·재혼 사상 최대.

혐오·갈등 -> 애정·연대: 젠더와 가족(가천대 유재언)

4. 전생애 성적권리

이 나이에 섹스?... 80대에도 즐거운 성생활 한다

男 경구용 발기부전치료제·女 윤활제, 적극 사용 필요

“90세 자식 낳은 피카소... 90대 성생활 문제 없어”

노인실태조사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성생활⁹⁾					
- (배우자/이성친구)성생활 질문에 대한 답변 의향	○	×	×	×	×
- (배우자/이성친구)성생활 중요성	○	×	×	×	×
- (배우자/이성친구)성관계 빈도	○	×	×	×	×
- (배우자/이성친구)성관계 만족도	○	○ ⁸⁾	×	×	×
- (배우자/이성친구)성관계 불만족 이유	○	×	×	×	×
- 성생활 상담서비스 필요도	×	○	×	×	×
노년의 성					
- 성생활 중요성	○ ²⁾	×	×	○	×
- 성교육·성상담 참여경험	×	×	×	○	×
- 성교육·성상담 필요도	×	○ ²⁵⁾	×	○	×

혐오·갈등 -> 애정·연대: 젠더와 가족(가천대 유재언)

4. 전생애 성적권리

“성폭행 피해”호소하니 “치매”라고 했다

5년 새 44% 늘어난 노인 대상 성범죄... '수치스러운 일' 고통 딛고 신고해도 사회적 편견 앞 절망

"요양보호사 절반이 성희롱 경험...25%는 성추행 피해"

더불어민주당 허중식 의원은 민주노총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370명 가운데 47%인 173명이 어르신으로부터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25%인 93명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답했으며, 보호자와 관리자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답한 사람은 각각 15명과 8명으로 4.1%와 2.2%로 나타났다고 허 의원은 밝혔습니다.

천안시, '노인 성(性)장 플러스' 노인 성교육 실시

- 노인 성폭력 증가에 따라 올바른 성 인식과 성희롱 등 대처방안 안내

혐오·갈등 -> 애정·연대: 젠더와 가족(가천대 유재언)

마치며: 방향성, 구체적 개선안

- 방향성
 - 다층성, 다변화, 생애변동성
 - 개인 간의 갈등 → 억압·차별적 사회구조 개혁: 법, 제도, 기관(학교, 직장 등), 언론, 문화
 - 책임성 강화:: 사회적 지원과 더불어 핵심 관련 주체들의 역할 명확화
 - 융합과 상생: 페미니즘, 패밀리즘, 세대, 생애변화, 계층, 지역 등
- 구체적 개선안
 - ~11월 말: 조성은 외(2021). 2021 중장기 사회보장 공론화 과제. 한국사회보장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및 단행본 통해서 제시 예정

혐오·갈등 -> 애정·연대: 젠더와 가족(가천대 유재언)

주제발표 3

세대와 가족

: 세대간 형평과 가족의 지속가능성

한 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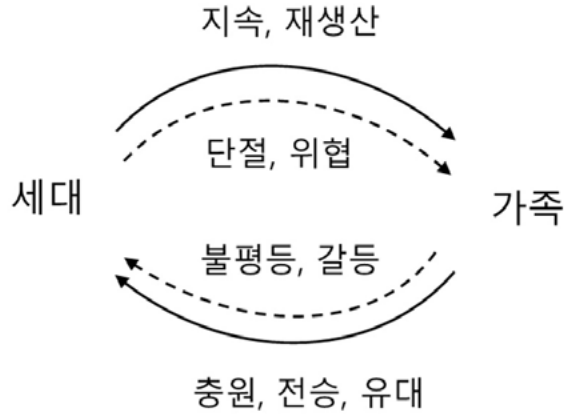
세대와 가족: 세대간 형평과 가족의 지속가능성

한 준
(연세대 사회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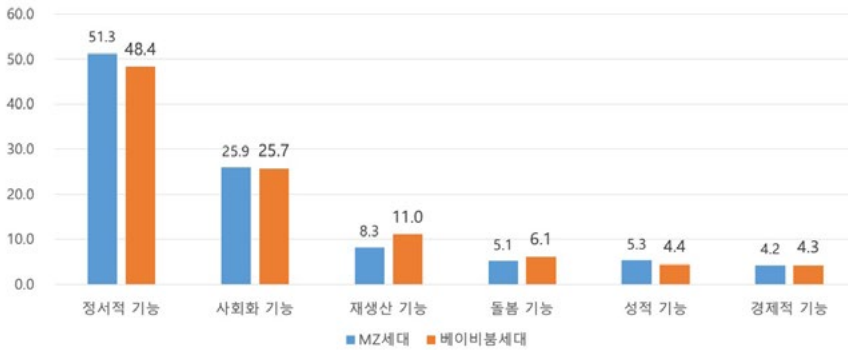
세대와 가족의 관계

- 가족을 통한 사회 신규 세대 충원
- 가족이 담당하는 사회적 가치, 규범, 상식의 세대간 전달
- 세대간 유대(세대간 돌봄의 교환과 이전) 중요 축으로서 가족
- 세대간 계승을 통한 가족 재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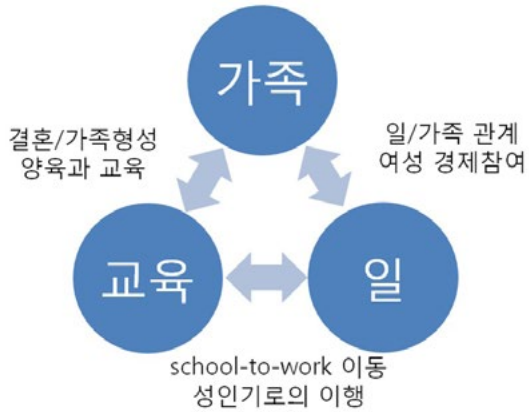
세대와 가족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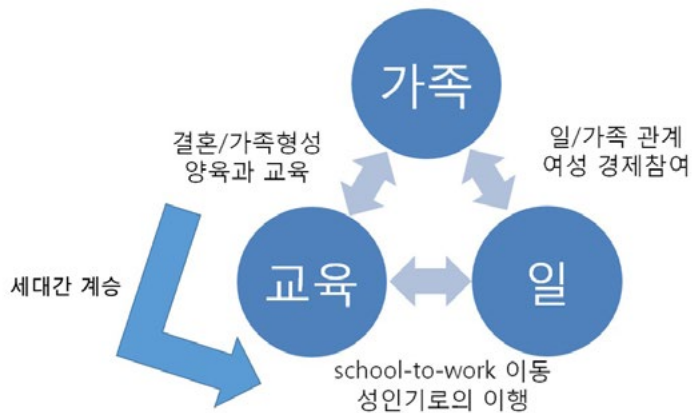
가족 역할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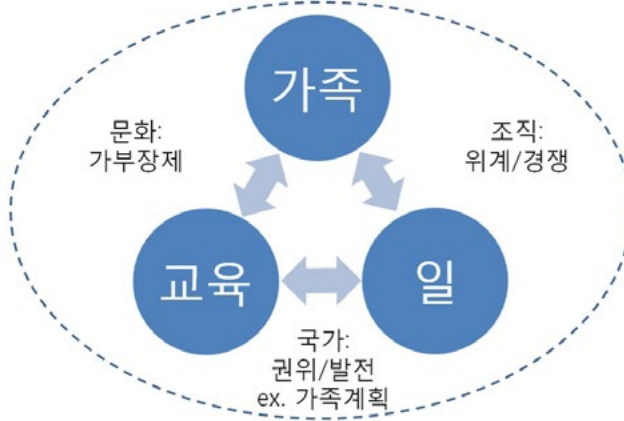
한국의 발전에서 가족-교육-일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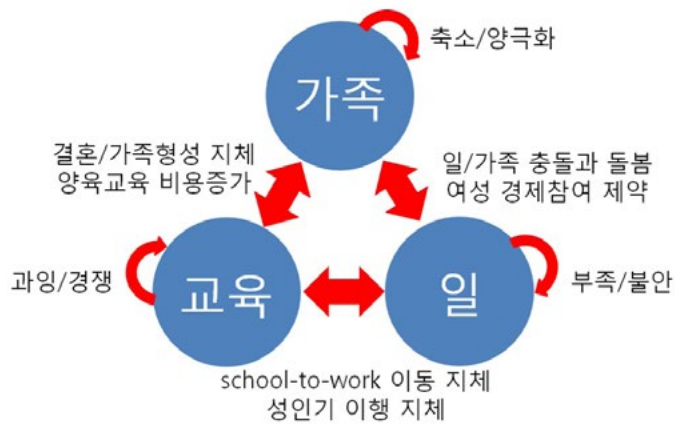
한국의 발전에서 가족-교육-일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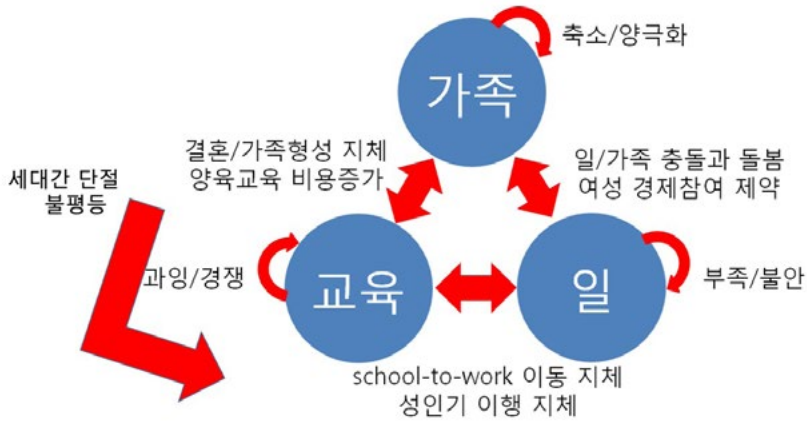
유교적 발전국가와 가족주의: 베이비붐 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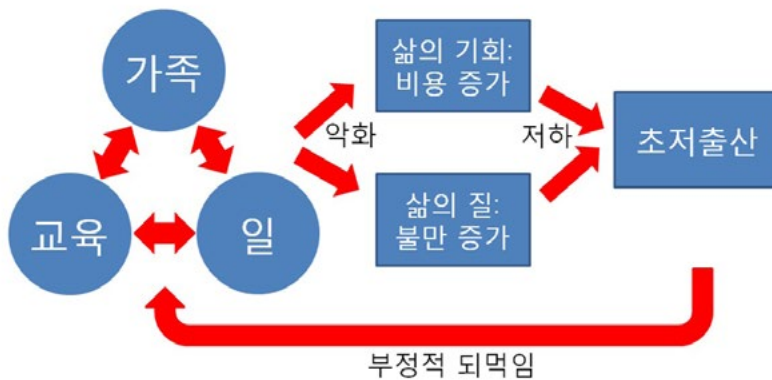
포스트 발전국가와 개인화: MZ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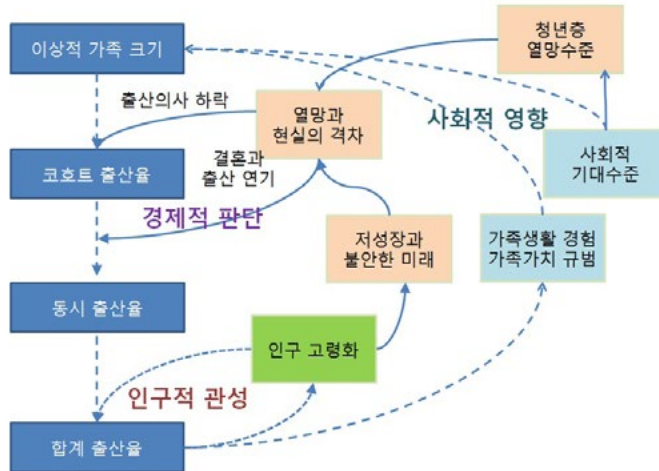
포스트 발전국가와 개인화: MZ세대



가족-교육-일 관계 악화의 메커니즘



세대간 불평등과 저출산의 악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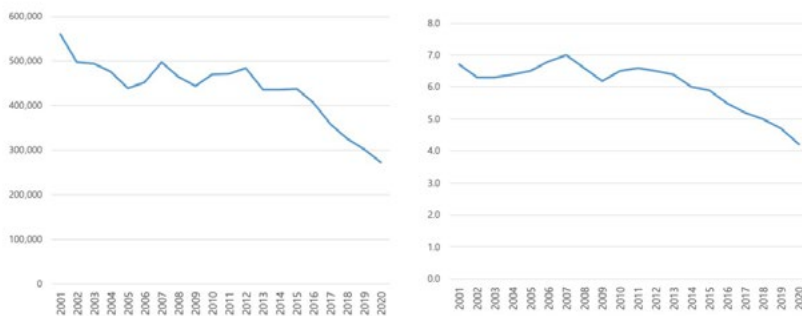
세대와 가족 관계의 변화와 문제점

- 가족 형성의 지체, 감소와 저출산: 세대 충원의 위기
- 가족을 통한 사회화의 약화: 가치, 규범, 상식의 지속 위기
- 돌봄, 부양의 세대간 교환, 이전의 약화: 세대간 유대의 위기
- 세대간 계승의 단절 위기: 가족 재생산의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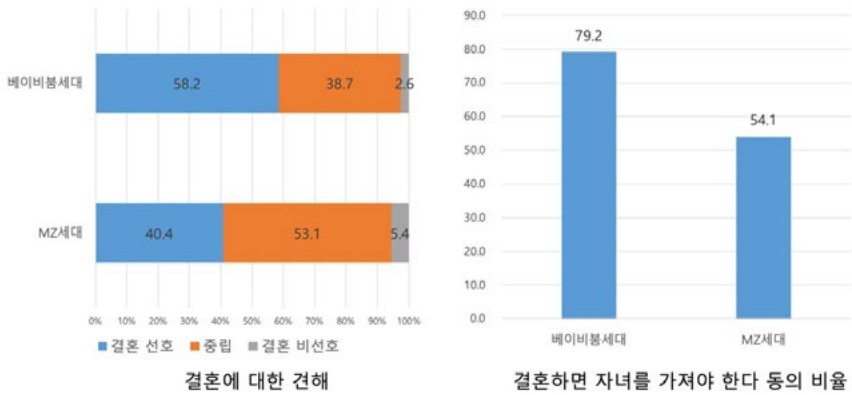
세대와 가족 관계의 변화와 문제점

- 가족 형성의 지체, 감소와 저출산: 세대 충원의 위기
- 가족을 통한 사회화의 약화: 가치, 규범, 상식의 지속 위기
- 돌봄, 부양의 세대간 교환, 이전의 약화: 세대간 유대의 위기
- 세대간 계승의 단절 위기: 가족 재생산의 위기

혼인과 출산의 감소: 세대 충원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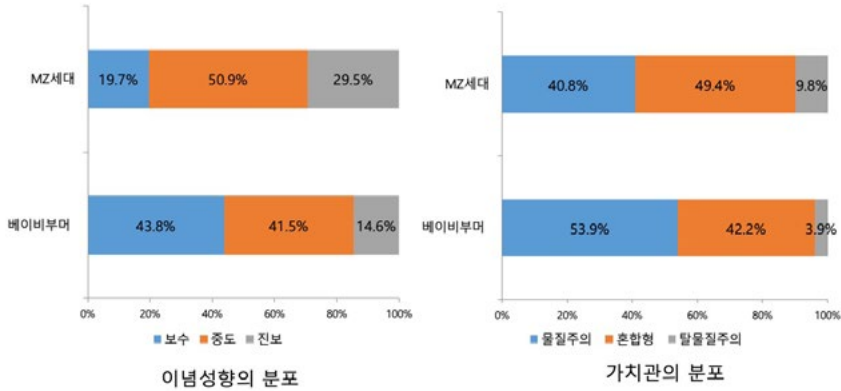
가족 형성에 대한 가치, 인식의 세대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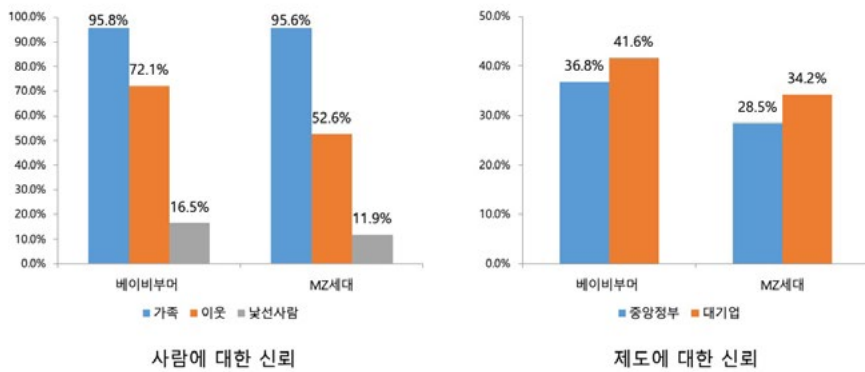
세대와 가족 관계의 변화와 문제점

- 가족 형성의 지체, 감소와 저출산: 세대 충원의 위기
- 가족을 통한 사회화의 약화: 가치, 규범, 상식의 지속 위기
- 돌봄, 부양의 세대간 교환, 이전의 약화: 세대간 유대의 위기
- 세대간 계승의 단절 위기: 가족 재생산의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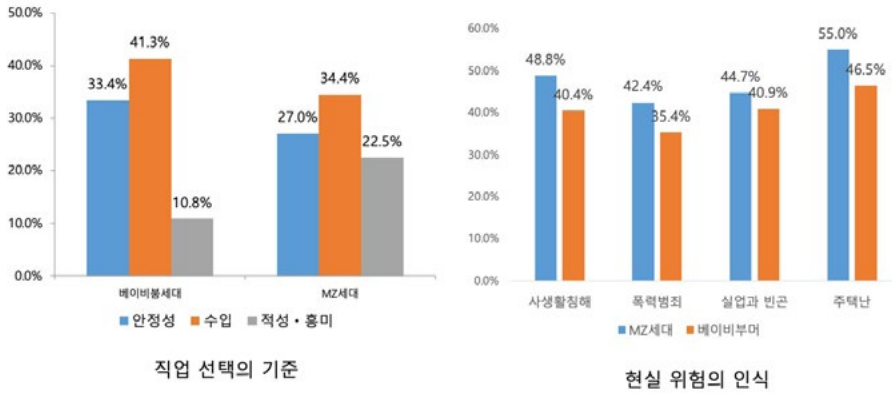
사회화와 가치 전승의 위기 (1)



사회화와 가치 전승의 위기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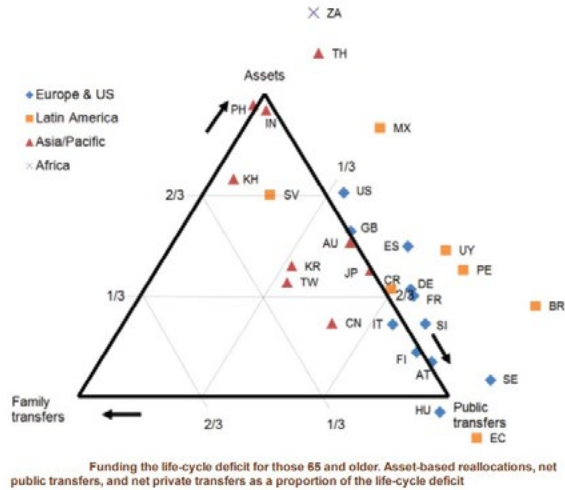
사회화와 가치 전승의 위기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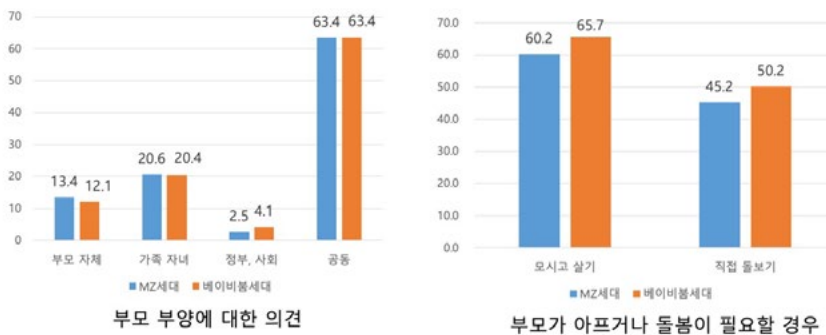
세대와 가족 관계의 변화와 문제점

- 가족 형성의 지체, 감소와 저출산: 세대 충원의 위기
- 가족을 통한 사회화의 약화: 가치, 규범, 상식의 지속 위기
- 돌봄, 부양의 세대간 교환, 이전의 약화: 세대간 유대의 위기
- 세대간 계승의 단절 위기: 가족 재생산의 위기

노인 부양 분담의 국제 비교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



세대간 형평



- 조세부담율에 대한 세대간 회계 적용시 베이비부머는 생애 총소득의 10% 가량 부담
- 반면 MZ세대는 조세기준 따라 생애 총소득 20~35%로 조세부담 급증
- 조세정책 변화 및 인구구조 변화가 주요인

전영준(2020)

세대간 갈등 인식



세대갈등 심각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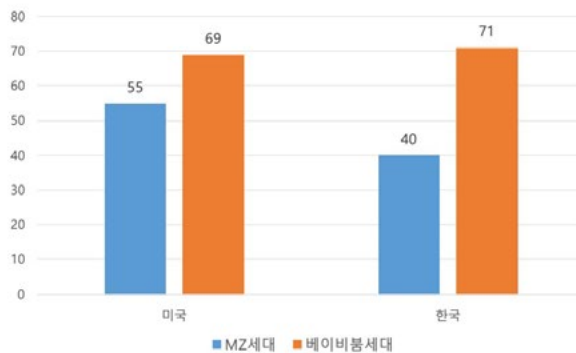


가족내 세대갈등 원인 인식

세대와 가족 관계의 변화와 문제점

- 가족 형성의 지체, 감소와 저출산: 세대 충원의 위기
- 가족을 통한 사회화의 약화: 가치, 규범, 상식의 지속 위기
- 돌봄, 부양의 세대간 교환, 이전의 약화: 세대간 유대의 위기
- 세대간 계승의 단절 위기: 가족 재생산의 위기

세대별 가족 형성 비율 비교 (23~38세)



주제발표 4

일·생활 균형의 가치와 전략적 선택 변화

진미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2021 한국가족정책학회 추계 학술대회

일·생활 균형의 가치와 전략적 선택 변화

2021. 11. 5.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진미정

1

목차

1. 우리나라 일·생활 균형 현황
2. 일·생활 균형의 의미
3. 일·생활 균형의 가치와 선택 변화
4. 일·생활 균형 관련 정책 현황
5. 현행 정책의 한계와 정책 제안

2

OECD Better Life Index: Work and Life Balance

1



지표 1: 전체 근로자 중 주 50시간 이상 근로자 비율 (한국 25.2%, OECD 평균 11%, 37/40 위)
 지표 2: 여가 및 개인유지 시간 (한국 14.7시간, OECD 평균 15시간, 27/40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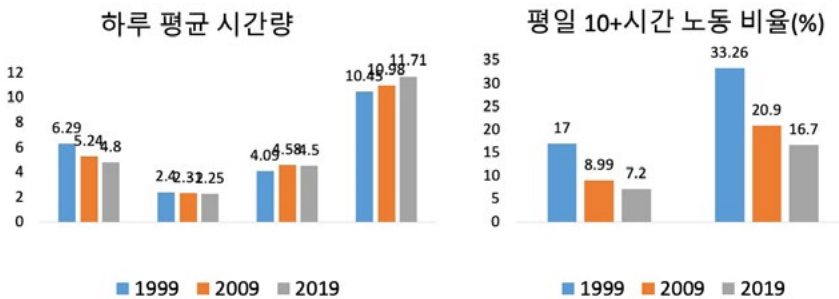
출처: OECD Better Life Index. <https://www.oecdbetterlifeindex.org/>

3

우리나라 일·생활 균형 현황

1

- 1999, 2009, 2019 생활시간 비교
- OECD 생활시간 구분: ① 유급+무급노동 ② 여가 ③ 개인유지(수면, 식사) 시간량
- 최근 20년 동안 유급노동 시간 감소, 무급노동 시간 감소, 여가 및 개인유지 시간 증가



4

일·생활 균형의 의미: ① 일·가정 양립

2

- 일·가정 양립
 - role theory
 - 직장인으로서의 역할과 가족원으로서의 역할 갈등
 - 양 자간 선택
 - 일·가정 전이(spill over)
 - 긍정적 전이로서의 일·가정 촉진
 - 부정적 전이로서의 일·가정 갈등

항 목
1) 직장 일 때문에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2) 직장 일 때문에 가족행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직장 일을 집에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다.
4) 가사, 자녀 양육, 가족원 돌봄 때문에 직장에 지각, 조퇴, 결근을 한다.
5) 가사, 자녀 양육, 가족원 돌봄 때문에 불성실하다는 비난을 받아본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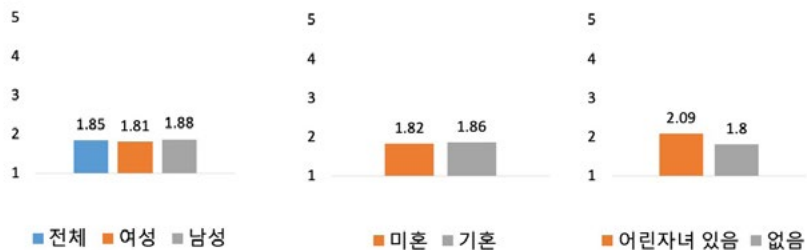
출처: 2020년 가족실태조사 조사표

5

일·가정 갈등 수준

2

- 2020년 가족실태조사를 통해 볼 때 일·가정 갈등 점수는 5점 척도의 2점(별로 그렇지 않다)의 수준임
- 여성보다 남성 점수가, 미혼보다 기혼 점수가,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더 높음



자료: 2020 가족실태조사

6

일·가정 갈등 추세

2

- 2010년, 2020년 가족실태조사의 일 가정 갈등 점수 비교(동일한 5개 문항 사용)
- 취업 중인 전체집단, 남성근로자, 여성근로자, 12세 이하 자녀 있는 근로자
- 2010년에 비해 2020년에 일·가정 갈등 점수 낮아짐



자료: 2010, 2020 가족실태조사

7

일·생활 균형의 의미: ② 일·생활 균형

2

- 일·생활 균형
 - 개인화 이론
 - 개인 vs. 가족성원 vs. 사회적 존재로서의 욕구 충돌
 - 시간, 소비, 생활에 대한 자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의 가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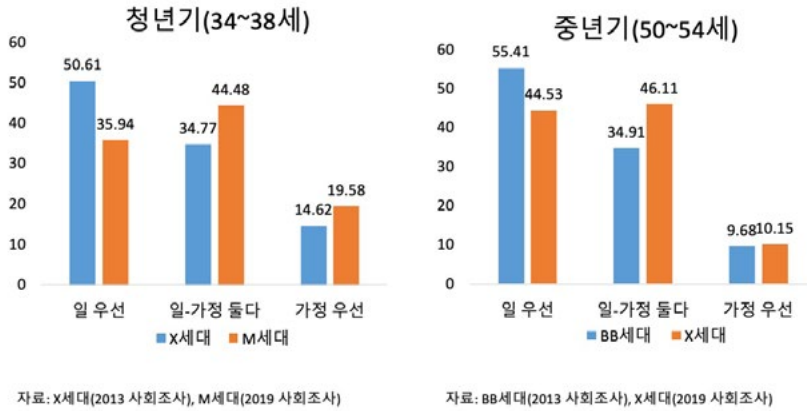


8

일·생활 균형의 가치 변화: 세대 비교

3

- Babyboom, X, M 세대 비교
- 최근 세대일수록 일과 가정생활 중 일이 우선한다는 태도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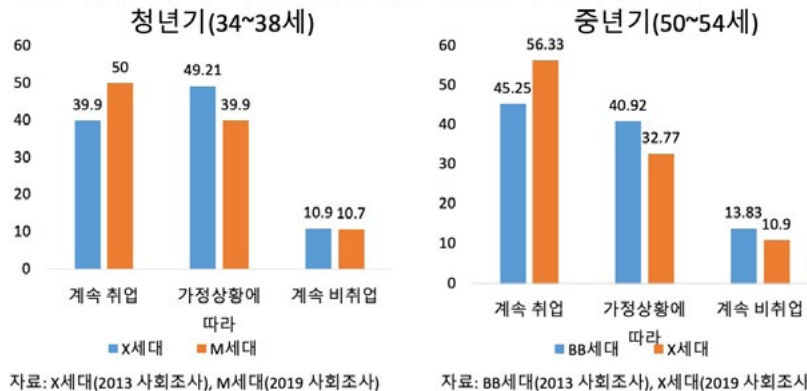


9

일·생활 균형의 가치 변화: 세대 비교

3

- 여성이 결혼, 육아 등 가정상황에 상관 없이 취업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짐
- 최근 세대일수록 여성취업과 가정역할은 무관하다고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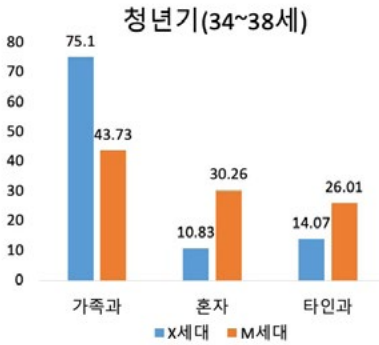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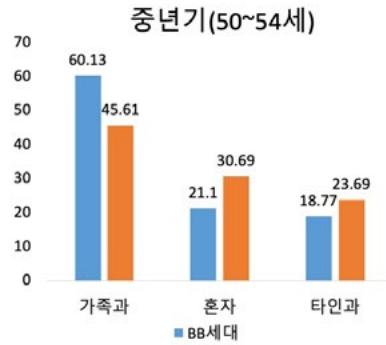
일·생활 균형의 가치 변화: 세대 비교

3

- 최근 세대로 올수록 혼자 여가를 보낸다는 비율이 높아짐(전체 집단)



자료: X세대(2013 사회조사), M세대(2019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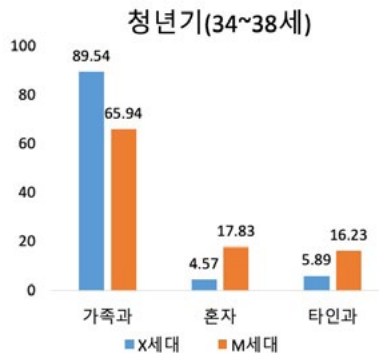
자료: BB세대(2013 사회조사), X세대(2019 사회조사)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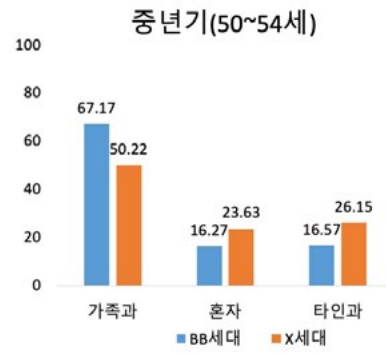
일·생활 균형의 가치 변화: 세대 비교

3

- 기혼자 집단에서도 최근 세대로 올수록 가족과 여가 보내는 비율이 낮아지고, 혼자 여가를 보낸다는 비율은 높아짐



자료: X세대(2013 사회조사), M세대(2019 사회조사)



자료: BB세대(2013 사회조사), X세대(2019 사회조사)

12

일·생활 균형의 전략적 선택: 결혼, 양육 태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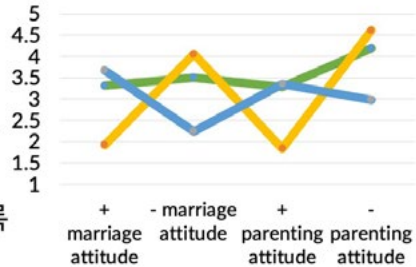
- 20~39세 미혼자의 일·생활 균형과 결혼, 양육 태도 (2020 서울가족조사, n=596)

Ambiguous attitude (n=430, 72%)

Negative attitude (n=121, 20%)

Positive attitude (n=45, 8%)

- 남성은 일·생활 갈등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과 양육에 긍정적
- 여성은 일·생활 갈등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과 양육에 부정적



출처: 최하영, 박정민, 진미정(2021).

13

일·생활 균형의 전략적 선택

3

-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전략적 선택의 세대 변화
 - 일, 가족, 개인 영역의 우선순위 변화
 - 가족원으로서의 존재에 부여되는 의미나 가치는 가장 후순
 - 개인적 자원과 상황에 따라 선택 또는 포기함으로써 일·생활 균형 추구



14

정책 현황: 제1차~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4

	1차 기본계획 (2005-2010)	2차 기본계획 (2011-2015)	3차 기본계획 (2016-2020)	4차 기본계획 (2021-2025)
대과제	일과 가정의 양립 가족친화적 사회 문화 조성	일과 가정 양립 일상 화	일·가정 양립 사각지 대 해소	함께 일하고 함께 돌 보는 사회 조성
중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성보호 강화 가족친화적 직 장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 위한 휴가 휴직제도 확대 개 선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가족친화적 직장· 사회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가정 양립 실 천 분위기 확산 남성·중소기업·비 정규직 등 실천 여건 강화 일·가정 양립 지 원 제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양육 병행 가 능한 노동환경 실현 개인의 생애와 조화를 이루는 노동환경 확립

15

정책 현황: 제1차~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관련 내용

4

	1차 기본계획 (2005-2010)	2차 기본계획 (2011-2015)	3차 기본계획 (2016-2020)	4차 기본계획 (2021-2025)
대과제	직장 가정의 양립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남성, 여성, 기업이 함께 하는 일 가정 양 립 실천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환경 조성
중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성의 가족생 활 참여 지원 여성의 경제활 동 참여 기반 구 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친화적 직 장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가정 양립 제 도 정착 남성의 일 가정 양립 지원 강화 기업의 일·가정 양립 실천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녀 모두의 일 하면서 돌볼 수 있는 권리 보장

16

현재 정책의 의의와 한계점

4

- 일·가정 양립 지원의 토대 마련 및 지원 확대

- 보육서비스 확대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 및 급여 수준 확대
- 유연근무제도 확대



- 일·생활 균형의 욕구에 맞는 정책 미흡

- 변화하는 가치와 선택을 파악하는데 미진
- 개인적 영역과 가족 영역의 갈등 해결 미진
-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필요



17

일·생활 균형의 새로운 접근

5

- 가족시간

- 가족은 가사노동, 돌봄, 여가, 대화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
- 자율성 차원에서 보면 자율성이 낮은 시간

- 1) 유급노동
- 2) 가족 시간(무급노동 및 가족여가)
- 3) 개인 시간(개인여가: 혼자 또는 타인과)



- 가구 단위 vs. 개인 단위

- 가구 단위 접근이 오히려 가족에게 불리

예) 1차 재난지원금: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50만원, 4인가구 100만원

18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족정책 제안

5

- 가족역할과 개인적 욕구 모두 존중
 - 연차유급휴가는 개인 시간과 생활을 보장하는 휴가로 간주
 - **가족돌봄휴가제, 학부모 학교참여휴가제** 등 가족돌봄과 의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시간을 보조하는 휴가제도 도입 또는 유급화
- 직업경력과 가족돌봄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 설계
 - 육아휴직 장기화 지양
 - 육아기단축근무제도의 대상 확대

만8세 이하 자녀 → 만 10세 이하 자녀

19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가족정책 제안

5

- 가족돌봄의 경제적 보상
 - 육아휴직급여 상한선 상향조정
 - 자녀장려금,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확대

자녀장려금
총소득 4천만원 이하, 미성년자녀당 70만원 → 중위소득 50%까지 확대

출산크레딧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 18개월 인정 →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되 차등화

- 가족급여 구조 재검토
 - 영아수당, 양육수당, 보육료/유아학비, 아동수당 등의 충분성, 중복성 검토
 - 통합적 급여와 자원 도입 검토

20

주제발표 5

정책 및 서비스 수급권 단위
: 개인 대 가족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정책 및 수급권 단위 : 개인 대 가족

장민선(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2021. 11. 5 한국가족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발제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Contents

- I. 문제의 제기
- II. 현행법상 사회보장제도와 가족
- III. 사회보장 법제에서 수급권 단위
- IV. 마치며



I. 문제의 제기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변화하는 가족의 현실

- 가족구조의 변화 : 비혼의 증가,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들과의 생활공동체 형성 등 다양한 삶의 형태의 등장, 1인가구의 증가 등 과거 혼인을 매개로 한 부부와 자녀 중심의 가족 구조가 변화
- 가족기능의 약화 : 종래 가족이 담당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경제적 기능, 주거보장 기능, 자녀양육 및 교육 기능, 정서적 기능이 경제위기로 인한 대규모 실직, 이혼율 증가, 취업, 학업 등을 위한 별거 가족 증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인해 고유 기능 약화

현행 법제도 하에서의 가족

-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법제도의 비수용 : 혼인은 남녀간의 법률혼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실상 관계가 일부 인정될 뿐, 다양한 형태의 생활공동체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건강가정기본법상 1인가구가 정책 대상으로 포함되었으나 종합적 지원대책 미흡
- 가족의 현실은 변화하고 있으나 법제도는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과 유형을 전제로 구성

I. 문제의 제기

사회보장제도에서의 가족의 의미

- 전통적으로 가족은 가족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의료, 아동 및 노인 부양 등 복지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
- 사회보장 제도는 가족이나 가구를 정책이나 수급권 단위로 설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현행법상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가족의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의 혜택에서 소외

사회보장법제 변화의 필요성 모색

- 가족구조의 변화 및 가족기능의 약화라는 변화된 현실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가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법상 가족이 아닌 사람들의 사회보장 수급권의 보장의 측면, 가족에게 부과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부양 의무 등을 개선하기 위한 공적 부담의 확대 측면 등의 문제 제기를 통해 사회보장 법제 변화의 필요성을 모색
- ▶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법, 공공부조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 정책 및 수급권 단위로서 개인 또는 가족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어떠한 혜택 또는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지 고찰

II. 현행법상 사회보장 제도와 가족

1. 헌법
2. 사회보장기본법
3. 건강가정기본법
4. 민법

II. 현행법상 사회보장 제도와 가족

한국법제연구원

1. 헌법

-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헌법 제34조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
 -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한 노력, 노인과 청소년 복지 정책 실시할 의무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 규정
- 헌법은 가족제도에 관해서 제36조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여 가족 제도가 헌법의 보호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 헌법에서 가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고, 제36조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 반드시 혼인을 통해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 가족생활의 핵심이 가족 안에서 개개인의 인격발현의 보장, 양성평등의 실현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가치를 지향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는 가족개념의 확장도 가능하다고 할 것임

II. 현행법상 사회보장 제도와 가족

한국법제연구원

2. 사회보장기본법

- 헌법에 따라 보장된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사회보장수급권)를 가짐
 - 사회보장제도는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가족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과 상황에 대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대응하는 것임
 - 국가는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 제도, 사회복지서비스 제도 및 소득보장 제도 마련
 - 제6조에서 가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가정의 유지와 기능향상을 도모하여야 하고, 가정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해야 함

사회보장기본법

- 제6조(국가 등과 가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II. 현행법상 사회보장 제도와 가족

한국법제연구원

3. 건강가정기본법

-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족과 가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제2조)
 - ✓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을 기초로 한 사회구성의 기본단위
 - ✓ 가정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
- 가정은 가족구성원을 기반으로 인정되는 개념으로서, 가정의 기능으로서 가족구성원의 정서적, 신체적 건강지원,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안정된 주거생활 등을 규정하고 있음(제21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해 적극 지원할 의무
- 가족단위의 복지증진(제23조)과 가족부양의 지원(제25조)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보장정책은 가족을 지지하는 것이어야 하고, 가족구성원에 대한 부양의 1차적 책임은 가정에 있음을 분명히 함

건강가정기본법

제23조(가족단위 복지증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험·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보험료의 산정·부과, 급여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가족을 지지하는 시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제25조(가족부양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중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간병을 요할 경우 가족간호를 위한 휴가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II. 현행법상 사회보장 제도와 가족

한국법제연구원

4. 민법

- 민법에서는 가족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5.3.31]

- 이러한 가족의 범위는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됨으로써 개정된 것으로서 원래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家의 구성원으로서 호주 아닌 사람을 가족으로 보았다가, 호주제 폐지에 따라 가정이 파괴 또는 가족 해체를 우려하여 위와 같이 규정한 것임
- 그런데, 위와 같은 가족의 범위는 민법상 친권, 부양, 상속에 있어서 별다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됨



III. 사회보장 법제에서 수급권 단위

1.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의 수급권은 개인 단위로 인정되고 있으나, 부양가족연금액과 같이 급여액 산정에 있어서 부양가족 고려하거나, 일정 범위의 가족에 대하여 분할연금, 사망일시금, 유족연금 등 별도의 수급권 인정
- 가족이라는 이유로 연금액에 추가 금액을 인정하거나, 가입자와 이혼 또는 가입자 사망시 분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는데, 여기에서 배우자는 사실혼관계까지 인정되지만, 혼인이나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동거인의 경우에는 수급권 불인정

1) 부양가족 연금액

- 수급권자 기준으로 하여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로서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해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 노령연금을 비롯한 연금 급여액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범위 : 배우자,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
- 배우자와 자녀는 가족관계 증명서만으로도 인정(단, 가출이나 실종 등 부양관계 없음이 명백한 경우 불인정)
- 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와 부모, 부 또는 모의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인정됨

III. 사회보장 법제에서 수급권 단위



1. 국민연금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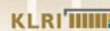
2) 분할 연금

- 혼인 기간(배우자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 제외)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자, 60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 수급권 인정
- 연금액 :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3) 미지급 급여

-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중 미지급된 것이 있을 경우,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 급여를 지급
- 청구권자 :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는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인정되나, 1년 이상 거주불명이나 가출 또는 실종신고, 연락 중단의 경우 예외/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인정하나,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주거를 달리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수급권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지원을 한 경우에만 인정
- 지급 순위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이고, 동일 순위 2인 이상 균등배분

III. 사회보장 법제에서 수급권 단위



1. 국민연금법

4) 사망일시금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 제37조에 따른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부조적, 보상적 성격의 급여
- 인정 범위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주거를 같이 않아도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인정(다만, 1년이상 거주 불명, 가출이나 실종신고, 연락 중단 예외)
- 4촌이내의 방계혈족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인정(다만, 1년이상 거주 불명, 가출이나 실종신고, 연락 중단 예외)되지만,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거주 불명, 가출이나 실종신고, 연락 중단이 되지 않은 상태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생계비 지원을 입증

III. 사회보장 법제에서 수급권 단위



1. 국민연금법

5) 유족연금

-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 유족의 범위 및 지급 방식 :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서,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손자녀,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조부모(배우자 조부모 포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
- 배우자와 자녀는 가족관계 증명서만으로 인정되나, 부모의 경우 주거를 같이하면 인정/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정기적 생계비 지원 입증
- 손자녀와 조부모는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손자녀의 부모나 조부모의 자녀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손자녀의 부모나 조부모의 자녀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고, 주거를 달리하는 정당한 사유나 정기적 생계비 지원

III. 사회보장 법제에서 수급권 단위



1. 국민연금법

5) 소결

- 국민연금제도는 개인의 기여를 바탕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혼인이나 혈연과 같이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급여액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급여가 인정
- 따라서, 가족이라는 이유로 급여액을 추가하거나 분할 연금 수급권, 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하고, 미지급 급여에 대한 청구, 사망일시금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때문
- 가입자의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에는 주거를 같이하는지에 관계 없이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인정되는데, 배우자나 자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으로 판단됨
- 그밖에 부모나 손자녀, 조부모의 경우에는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부양관계가 없음이 확실한 일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인정되는 반면,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정기적으로 생계비가 지원되었음이 입증되어야 자격 인정

III. 사회보장 법제에서 수급권 단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인정되는 각종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를 우선
- 이법에 따른 급여는 개별 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 단위로 실시 가능
- 수급자격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종래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용되었으나, 부양의무자기준은 가족에 의한 부양을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한다는 비판에 단계적으로 완화, 폐지(아직 법률 개정 전이나 '21. 10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발표)
→ 가족부양 우선의 관점에서 공적 부양의 확대로의 전환
- 따라서, 생계급여의 경우에 가구단위로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여 수급자격을 판단해야 하는데, 시행령 제2조가 '개별 가구'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과, 등재되지 않아도 그의 배우자,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이 가구 구성원이 되고, 주거를 같이하지만 동거인은 가구 구성원에서 제외 → 개별 가구의 구성원도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 인정

III. 사회보장 법제에서 수급권 단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20대 청년 1인가구의 별도가구로의 인정 문제
 - 현재 미혼의 자녀 중 30세 미만의 사람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여도 부모와 동일 가구로 인정, 이에 따라 수급자격 심사시 부모의 소득 재산이 함께 고려됨에 따라 선정기준에서 탈락 또는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대상자로 선정되어도 1인당 현금 수급액이 1인가구 수급액보다 적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19.7 주거급여에 한해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분리 지원 발표
 - 그러나, 생계급여 등 판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위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부모가 20대 자녀를 부양하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일반화하여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
 - 저소득 20대 청년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생활비 부담마저 큼에도 불구하고, 위의 규정에 따라 부모와 동일가구로 보장됨으로써 국가의 사회보장체계에서 소외되는 측면
 - 따라서, 20대 청년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하는 문화를 선도하고, 20대 청년의 빈곤상황을 개선하며 자립을 지원하고 부모와 청년세대 모두 노후대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20대 1인가구 증가라는 사회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가구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국가인권위원회 2020. 12. 28 권고)

III. 사회보장 법제에서 수급권 단위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공공부조는 개인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에 의한 부양을 원칙으로 하고 가족에 의한 부양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가족부양 우선의 관점을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러한 가족부양 우선의 관점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는 이제 국가의 공적 부양 확대 의미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이미 폐지, 21.10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나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온전한 의미의 폐지라고 하기 어려움
-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나, 개별가구를 중심으로 소득인정액을 판단하기 때문에 여전히 가족간의 부양의무는 인정
- 여기에서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가지는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
- 그러한 의미에서 20대 청년 빈곤층을 별도 가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인권위의 권고는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족기능의 약화라는 변화된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가구 기준을 다시 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IV. 마치며



IV. 마치며

- 현재와 같은 가족 중심의 사회보장 제도가 가족구조의 변화, 가족기능의 약화와 같은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볼 시점임
- 가족보다 더 가까운 생활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법적인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족에게 인정되는 사회보장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음
- 현행 사회보장제도가 가족에 의한 부양을 전제로 하면서 가족관계가 인정되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급여를 인정하고 있는데, 가족이 아닌 사람들도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상호 부양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러한 사회보장의 혜택도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 가족에 준하는 권리나 혜택의 인정 여부 논의
- 가족이 가지는 본래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 중심의 사회보장제도를 고수하게 되면, 가족구성원들이 헌법상 보장되는 사회보장 수급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을 고려 ⇨ 30세미만 미혼자녀 별도가구 인정 여부 논의
- 종래 가족이 1차적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아 가족에게 부양 책임을 우선 인정하고 가족이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 국가가 이를 보완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면, 현행 가족 중심의 사회보장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 ⇨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 책임의 확대, 가족 개념의 확장이나 법외 가족에 대한 사회보장의 권리 또는 혜택 인정 등 논의

종합토론

한국가족의 변화와 진보

최선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2부

2021 서울가족사업 세미나

서울시건강가족지원센터 / 좌장: 진미정(서울대학교)

사례발표 1

코로나 시기의 소상공인
가족관계 지원 프로그램 개발
- 도봉구가족센터를 중심으로

강진아 센터장
전현정 사무국장
장유경 팀원
도봉구가족센터

코로나 시기의 소상공인 가족관계 지원 프로그램 개발

- 도봉구가족센터를 중심으로

강진아 | 도봉구가족센터 센터장

전현정 | 도봉구가족센터 사무국장

장유경 | 도봉구가족센터 팀원

I. 들어가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자연재난은 개인의 건강 및 생계와 같은 기반이 되는 환경을 파괴하고, 그 개인이 속한 사회적 서비스와 시스템을 마비시켜 삶의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재난(disaster)이라는 말의 어원도 자연의 질서, 천체, 별(aster)이 기존과 어긋나는(dis)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재난의 의미가 자연재해를 지칭했었으나, 현대에는 그 이상의 피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인위적인 재난(man-made disaster)들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에 살게 되었다. 따라서 이찬수(2014)는 인위적인 재난을 사회적인 재난(social disaster)으로 통칭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초유의 재난은 우리 사회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반복적인 재난은 원자력이 저렴한 전기를 제공함과 동시에 방사능에 노출될 위험이 함께 하듯 이익과 위험을 함께 가지고 있다. 재난이 가져온 상실은 사건의 계기를 파악하게 되고, 그 원인이 잘 밝혀지면 이후의 위기와 파국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을 수행 할 수도 있다. 이처럼 재난은 대규모로 사회에 손해와 상실을 일으키지만, 동시에 그동안 의식하지 못했던 모순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언제나 깊은 밤은 새벽을 품고 있다. 폐허에 남겨진 사람들의 끝없는 추락의 마

지막 순간은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각성의 순간이 된다. 이를 발터 벤야민(2007)은 추락과 몰락의 순간에 마법적인 비상과 각성의 순간을 동시에 만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특화 사업은 이런 마법적인 변화의 시작을 위한 힘은 어디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러한 출발은 재난이 일상화된 위기의 시대에 취약한 실존에서 서로 ‘돌아 봄’으로 끝끝내 맞섬의 용기와 연대적 접근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필자들은 재난 속 위기라는 현실의 취약함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가족 운영 기업의 가족 관계에 주목하였다. 스트레스와 짜증을 가족관계라는 사적인 역할과 중첩된 일터에서 가족에게 투사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일차적으로 말하며 서로 건강하게 소통할 때 관계의 어려움으로부터 변화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음의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위기가족긴급지원)를 반영하여 사업을 기획하였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 재난에 의하여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원활한 가족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긴급하게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상기 법률에서 명시한 재난 피해 가족에 대한 지원의 종류와 내용에는 “가족상담,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 등 가족의 심리·정서지원”등이 있다. 아울러, 재난의 정의와 범주를 명시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는 “자연재난”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사회재난”으로 분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를 분명히 하고 있다.

Delaney and Shrader(2000)의 선행 연구는 재난의 영향은 불평등적이어서 재난

발생 시 노인, 아동, 여성 모두의 취약성이 높고, 피해에 더 크게 노출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즉, 재난의 영향력은 사회의 취약한 사람들에게 있어 차별이 더 증가하는 환경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적일 수 있는 재난의 영향력 중에서 필자들은 코로나 19라는 재난의 시기에 경제적 고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 고용인 없이 가족들이 경영하는 일터에서 가족 내 일어날 수 있는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크다는 보고에 주목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일(Work)과 삶(Life) 변화 조사 보고서(2020)에 의하면, 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일수록 일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족들에게 푸는 경우가 더 많아진다고 한다. “일의 목표가 가족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가족을 향해 스트레스를 푸는 행위는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영위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진미정 외(2020)는 친밀한 관계의 상호작용 경험이 많지 않은 부부에게 있어 개인 공간과 가족 공간과 같은 사적 공간과 일하는 공적 공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시간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생활의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음에 주목한다. 이러한 불편함은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간상으로 자유롭다고 생각했던 자영업이 오히려 임금노동직보다 더 시간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가족과 함께 질적인 시간을 보내지 못함에 따라 나타나는 유대감 상실에 대한 불안감도 나타나고 있다(문효진, 2020). 또한 최근 보고서(중소기업중앙회, 2020)에서도 일과 삶의 균형이 나빠지면서 소상공인의 78.5%가 만성피로, 우울감, 피로감이 늘었다고 답을 하였으며, 이어 일의 질이 저하되고, 일이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순으로 보고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성과 중심적 태도는 재난에 대한 대비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며,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임을 우리에게 확인시키려 한다. 그러나 특별히 재난 속에서 취약한 사람들이 추락하는 가운데 비상하기 위해서는 타자와 공존해야 한다. 안전한 환경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져 버린 재난의 시대에는 더욱이 ‘나’라는 존재는 타자가 없이는 현존할 수

없다. 그리고 타자의 개념에는 ‘자기 자신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을 포함한다. 주디스 버틀러(2013)는 자기가 자신에게 타자라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굴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만큼 낯선 것이라고 하였다. 추락의 시학도 내가 타자를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언제나 타자에게 포획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필자들은 재난으로 인해 타자와 공존하는 방식에 대한 각성은 바쁜 일상에서 놓치고 있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였다. 따라서 본 사업에서는 그 새로운 의미가 발견되기를 바라는 타자를 가족 구성원으로 상정하였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일과 가정이라는 매우 중요한 두 영역이 중첩되는 가족이 경영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함께 참여하고자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맞춤형 방문 프로그램: ‘작은 가게 가족들의 마음 지킴이’ 사업을 구성하였다.

II. 소상공인 가족의 관계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본 센터가 지역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요구도 조사 결과(지역사회 요구도 조사, 2020)에 의하면 지역사회로부터 받고 싶은 도움 중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 및 여가 프로그램이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의 “코로나 19 관련 여성·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2020)에서도 ‘코로나 19로 인한 가족의 변화와 정책과제’로써 코로나 블루, 고립, 우울감 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른 가족 간 갈등에 대한 심리·정서 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정책 의제를 제안하였다. 또한 가족 내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가구에 대해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협력하여 가구 단위의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전문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재난과 위기의 시기에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액만으로 고통이 환원되는 계층인 소상공인들의 고통 뒤에 이를 지탱하고 있는 가족의 고통에 주목하여, 일 또는 업무로서가 아닌, 가족으로서 공동의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현재 가족안에서 나의 위치, 관계, 역할을 돌아보고 점검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위의 제안을 반영하여 가구 단위의 사례관리 방식인 업체별 방문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였다. 이는 소상공인마다 영업시간과 가족별 근무시간, 운영에 참여하는 가족구성 등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했다. 동시에 실무자 업무역량의 한계로 많은 수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었으나, 현장의 다양한 가족사례를 직접 접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가족경영 소상공인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가족간 관계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신규사업으로 동일 또는 유사 사업을 찾기 어려워, 필자들은 기획 회의를 거쳐 소상공인 개인의 스트레스를 측정·관리하고, 가족 간 의사소통을 점검하면서 가족문화 지원,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일상지원 등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구체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봉구소상공인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전 간담회를 통해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하는 영세 소상공인업체의 명단을 받는 등 협조를 구할 수 있었다.

이후 구글 폼으로 받은 신청서에 가족관계 문항을 포함하였으며, 추가적인 사전척도 검사로 가족관계 위기징후 척도를 활용하였다. 사업의 대상인 가족 경영 소상공 가족들의 반응은 가족 내 '소통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다'와 '있지 않다'로 응답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대체로 싸움과 충돌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응답하지 않았으며, 강압적으로 자신의 말을 하거나 자기 의사를 강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었다. 이는 자기 보고식의 신청 설문이 갖는 한계와 불특정 업체가 아닌 본 센터나 소상공인회와의 관계를 통해 연계된 업체로 가족 내 어려움을 노출하는 데 대한 부담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위기와 관련한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은 높게 드러났다.

1. 심리지원 프로그램 - “마음을 살펴 봄”

도봉구 관내 가족들이 경영하는 소상공인들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스트레스 점검과 의사소통유형 검사를 통한 심리지원 프로그램 “마음을 살펴 봄”을 실시하였다. 가족관계 문항을 넣은 신청서를 구글 폼으로 받았으며, 사전검사로 가족관계 위기징후 척도를 활용하였다.

1) 스트레스 점검

각 개인이 지각하는 스트레스는 개인의 기질이나 상황 등 실제 직면한 현실 뿐만 아니라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무의식적 기제가 함께 혼재되어 있어 단시간 그 이면을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유**맥파>라는 스트레스 측정기를 통한 객관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신뢰도를 높이며 라포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맥박 변화도와 심박 분포도, 자율신경 균형도를 측정하여 나온 상세분석 결과는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상태’, ‘일시적인 스트레스 상태’, ‘초기 스트레스 상태’, ‘일시적인 스트레스가 반복적으로 쌓이며 스트레스 내성이 약해지는 시기’, ‘만성 스트레스로 진행되는 상태’로 척도화 하여 점검할 수 있었다. 소상공인들의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사전 조율하여 약속된 시간에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중년기 참가자들은 심혈관 건강상태 정보에 대한 피드백 만족도가 높았으며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심으로 확장할 수 있었다. 다소 젊은 부부들의 경우에는 건강에 대한 염려가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분석 결과 ‘과로형 만성스트레스’가 나와 투잡을 하고 있는 자신의 심리상태에 대해 배우자와 함께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장기간 같은 동작을 반복해야 하는 일이 많은 소상공인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짧은 시간 실내에서 가능한 스트레칭 키트를 배부하였고, 스트레칭 동작을 공유하였다.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스트레스 측정 기기를 이용하여 객관적인 신뢰도를 확보한 부분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스트레칭 키트 배부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2) 의사소통 점검

가족간의 의사소통 점검을 위해 비교적 검사 문항이 적은 “Satir의 의사소통 유형” 검사를 상황에 따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실시하여 참여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다회기 면접 검사가 아닌 관계로 검사의 과한 일반화 방지를 위해 가족치료이론 전문가를 섭외하여 ‘피드백 문서’도 제공하였다. 실무자가 일터로 방문하여 가족 경영인들의 마음을 살피는 프로그램으로, 일터에 긴 시간 머무를 수 없는 제약을 극복하고자 가장 바쁘지 않은 시간을 모니터링하여 방문하였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가능한 소통 검사를 실시하였다. 심리검사의 일부를 일반화하여 과대 해석이나 상대를 향한 분석으로 가지 않도록 사전,사후 충분한 설명과 안내를 하였다.

사적인 공간인 집 뿐만 아니라 공적인 공간인 가게에서도 함께 지내야 하는 가족 구성원들간에 의사소통 유형을 아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었고, 아래와 같은 <우리 가족만의 솔루션>이라는 피드백 문서도 제공하였다.

“결혼한 커플들이 때로는 내가 왜 이 남자와 결혼했을까? 또는 내가 왜 이 여자와 결혼했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Satir의 의사소통 유형에서는 비난형의 아내는 아주 흔히 회유형의 배우자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회유형의 사람을 보면 순종적이고 착하고 정서적으로 자기에게 공격적으로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한다고 합니다. 반면 회유형은 비난 형을 볼 때 강한 힘을 느끼고 약한 자기를 이끌어주고 보호해주리라 믿습니다. 이를 통해 두 분은 각각의 정서 과정에서 서로에게 끌리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생활이 지속될수록 비난형 아내는 자신의 부정적 감정 잘못된 것에 대한 원인을 회유형의 배우자에게 돌리고 그에게 화를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회유형 남편 또한 내면에는 존중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있기에 때로는 갑자기 심한 비난 형에 대처 방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남성이 회유형일 때 바깥에서는 누구나 인정할 만큼 친절하고 진중하지만 가족에게는 쉽게 분노를 표출하고 군림하기에 배우자나 자녀가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대처 방식에는 좋은 씨앗이 있으므로 회유형 남

편은 상황과 상대방의 욕구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빨리 채워주려는 장점이 있고, 비난형 아내는 자신의 감정과 만나, 자기와 타인을 잘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에너지가 강한 장점이 있기에 서로 상대적으로 보안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평소엔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든 감정적 행동을 하기 전에 전반적인 자신의 정서를 알아차리고 솔직하게 감정을 전달한다면 상호보완적인 부부관계로 어떠한 갈등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의사소통 피드백 편집문서)

참여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피드백 결과에 대해 “싸울 때 이거 보면 안 싸우겠다.”며 즐거워하거나, “이런 검사를 처음 해보는데 남편과 내 성격이 일추 맞아서 신기하고 재미있다.” 는 반응이 있었다. “서로에 대해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객관적으로 알게 되어 나와 상대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였다.”거나 “갈등 상황에서 서로 안 좋게 이야기하면 어, 비난형 나오네, 안 좋게 이야기하네 하면서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며 만족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작은 말과 행동이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였으며, “서로게 너무 딱 맞는 유형이 나와서 놀랐다며 해석을 통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강점인지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등의 보고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관계의 소통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부부 및 세대 간 가족관계 만족도가 증가하였으며, 스트레스 감소도 확인되어 가족이 경영하는 소상공인들의 가족 내 갈등을 예방하였다. 다만 실제 소상공인들은 일과 가정 양립이나 일과 가정의 경계설정이라는 용어에 대해 혼란스러워했으며, 일과 가정의 경계설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다.

2. 가족문화 지원 프로그램- “가족과 마주 봄”

가정과 일터 모두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을 위한 문화지원 프로그램 “가족과 마주 봄”을 실시하였다. 가족 성원 개개별로 참여하는 캠페인성 문화 프로그램 “유취

즈온더도봉”과 전체 가족이 일 또는 업무 역할에서 벗어나 가족으로서 공동의 문화활동을 수행하는 “온가족 미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1) 가족성원별 문화 지원 - “유퀴즈온더도봉”

“유퀴즈온더도봉”은 비교적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나눔 활동과 선물 증정으로 참여 장벽을 낮추어 소상공인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쉽고 편하게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들로 구성하였으며, 센터 단체복을 입고 방문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인 만큼 스티커 투표 등을 활용하여 짧은 시간에 직관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참여자들은 “덕분에 웃었다.”며 즐거운 반응이었고, “경기가 어려워진 와중에 낯설지만 이런 이벤트라도 참여하니 기분전환이 되었다.”며 감사함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프로그램 진행에서는 바로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이야기한 참여자가 있는 반면, 다른 참여자의 방법을 보면서 자신의 방법을 생각해 보는 참여자가 과반수 이상이었다. 이것은 소상공인들이 가게 운영에 매진하느라 자기를 돌보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퀴즈를 통해 ‘쉽’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를 제공하여 자신을 마주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 여겨졌다.

2) 가족단위별 문화 지원 - “온가족 미션 프로그램”

생계유지를 위해 가족이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가족들은 일터라는 공적 공간에서의 역할이 불균형적으로 집중 될 수 밖에 없는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소상공인 가족에게 가족의 영역인 심리적 공간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이 함께 공유하는 가족문화 경험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가족과 눈 맞춤, 칭찬하기 등의 미션을 수행하는 ‘소통 미션’, 가족 구성원의 취향을 알아보는 ‘가족 밸런싱 게임’ 및 서로에게 선물하는 ‘만들기

활동' 등을 진행하였고, 마무리 활동으로 '가족이 함께 만드는 우리 가게 간판 만들기', '가족사진 퍼즐 맞추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같이 무언가를 할 시간이 없었는데, 함께 할 수 있는 소재를 제공해 주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도 시간을 할애하여 가급적 대화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다.”며 ‘일’이 아닌 주제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낸 것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또한, “딸과 더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게 해주어 고맙다.”거나, “엄마와 즐거운 시간 보내 좋고,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 행복했다.”, “너무 다정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걱정하고 챙겨 줄 수 있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새삼 느꼈다.” 등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3. 일상지원 응원 프로그램 - “이웃과 함께 봄”

소상공인들을 응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센터 내 “가족봉사단 - 행복 빔음이”와 함께 방역 활동 및 환경 미화 활동을 진행하였다. 소상공인들의 방역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동 시간 동안 쓰레기 줍기 활동을 함께하며 상가 주변의 미화활동과 방역활동을 병행 하였다. 가족봉사단들이 소상공인들에게 소독제와 마스크, 항균 필름지 등으로 구성된 방역 키트를 직접 포장하여 전달하였다.

소상공인의 경우 “관심을 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방문해주어 감사하다.”, “도움이 되었다”, “손주 또래의 아이들이 관심을 가져주니 기특하고 힘이 난다.”며 긍정적으로 반응 하였다. 이는 이웃들로부터 공감과 지지의 경험이 만족감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봉사단들은 “코로나를 예방하는 방역 관리 활동이면서도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하는 활동이라 즐거웠다.”,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려서 좋았고, 우리주변 소상공인 가게를 많이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힘든 시기에도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나에게도 도움이 되었다.”는 등의 피드백을 하였다. 또한 봉사단의 가족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는데 “아들이 어색해하고 엄마는 왜 봉사를 하느냐고 물었었는데, 직접 소독제도 뿌리고, 방역물품을 전달하는 걸 보면서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이 생겼다.”, “아이가 직접 경험함으로써 봉사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이 사라진 것 같다.”, “아이들과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생겨서 좋았다.”라는 참여자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처음 진행하는 거라 아쉬움보다는 좋았던 부분이 더 많아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협업해서 운영하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다.

Ⅲ. 나아가며

우리에게 닥친 재난은 에로스와 타나토스가 투쟁하는 삶을 마주하게 만든다.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살아있는 인간망(living-human-web)”임을 이해하고 각자의 주체적 존재로서 다양한 이야기에 함께 집중하고 공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바니밀러 맥리모어, 2017). 필자들은 지역사회에서 함께 관계 맺고 있는 상대방의 관심과 이야기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말 걸어주는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한병철(2020)도 고통이 이야기가 되어 흐르게 할 때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정신분석에서도 치료가 일어나는 경우는 치료적 전이관계 속에서 환자가 품은 채로 살아가던 것을 치료자가 대리적 성찰을 통해 접촉하는 경우가 있다.

장정은(2018) 역시 이러한 치료의 과정을 에로스를 통한 치료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였다. 재난에 의해 타나토스의 불안이 활성화되면 우리 안에 에로스 만족의 부재가 경험될 수 있다. 그러나 사랑받은 관계의 만족스러운 경험은 사랑 받지 못한 좌절스럽고 파괴적인 사랑을 성숙한 심리구조로 변화시키는 에로스를 향해 나아가게 한다. 여전히 에로

스와 타나토스가 서로 투쟁하는 현실 속에서 서로에게 ‘살아있는 인간 관계망’으로서 좋은 대상의 경험을 확장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에로스의 부재는 나쁨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관계 능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자와 나누는 미묘한 감정들의 상호 공명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어루만짐은 상대방이 소화하지 못하고 호명되지 못한 감정들을 다루며 에로스로 서로를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타자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의 실존적 취약함은 이 재난의 시기에 관계에 대해 성찰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 이 초대에 성실히 마주하며 발견해 나가는 관계의 힘은 필연적으로 집단적이고 연대적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서로를 담아주는 에로스를 적절하게 경험하게 되면 이러한 좋은 경험들은 더 이상 분열이라는 방어기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위기, 추락이 되는 재난이 그 반대의 지평에서 기회, 비상 of 의미로 새로운 출발이 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여, 그 지점을 출발로 삼아 다시 관계의 힘(being-in-relationship), 연대의 힘을 통해 좋은 대상의 경험이 확장되는 심리적 공간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가진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힘은 인간 실존에 필요한 관계 능력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대를 위해 본 사업은 코로나 19 이후 감염병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족들의 일상과 가족 서비스에 관한 수요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위기의 시기에 경제적으로 더 큰 손실을 경험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출발하였다. “가족들이 경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일의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푸는 경우가 많고, 일을 집에 가지고 가는 경우도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일과 가정 생활의 조화도 수월하지 않아 가족 간 갈등이 심화 되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선행 연구(중소기업중앙회 보고서, 2020)에 근거하여 가족들의 가족관계 점검을 지원함으로써 가족간의 갈등 예방 및 건강한 소통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코로나 19라는 재난은 우리 사회의 생활 방식 및 가족관계 등 거의 모든 영역에 걸

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재난은 종종 트라우마로 이끌어가기도 하며 그 안에는 삶을 유지해 가는 경제력, 건강, 관계자원 상실 등을 포함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 제한과 같은 닢선 경험은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높은 스트레스 경험과 경제적 위기를 함께 가져오는 상황이 되었다. 경영 매출과 가족관계의 만족도가 서로 깊은 관련이 있는 가족 경영이라는 상황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가족 돌봄의 어려움에 집중하였다. 재난은 사회적으로 경제의 문제를 고민하게 했고, 우리의 경제들을 재설정하며 우리의 취약함을 드러냈다.

따라서 코로나 19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중에서 가족이 함께 운영하느라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가 어렵다는 대상의 욕구를 반영한 심리지원, 문화지원, 일상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맞춤형 방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로 인해 일터와 가정생활이 중첩된 일상을 스스로 인식하는 환기적 이해를 통해 가족 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편한 감정들에 대한 가족들의 이해와 건강한 소통 증진을 도울 수 있었다. 이는 가족 내 위기가 발생한 이후의 회복보다 예방적 접근을 하였다는 것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본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발견된 맥락으로 하나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가족이 경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실제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시간과 비례하여 매출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따로 가족문화를 위한 시간을 할애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가족 구성원이 함께 자리를 비울 경우 아르바이트를 써야 하는 등 부담이 고스란히 그들에게 돌아가고 있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서로 교대로 개인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일반 기업은 가족 친화기업 인증 제도를 통해 가족 문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실제 실행하는 경우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 지원 혜택이 있지만 소상공인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업을 통해 들려 온 그들의 목소리로부터 가족이 경영하는 소상공인 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을 위한 출발이 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코로나 시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으로 가장 빈번히 소환되는

영세 소상공인의 가족관계에 주목한 다양한 사업이 지역별, 업종별, 가족구성원별 차이를 반영하여 가족센터들에서 추진되길 기대한다. 손실액 보상, 대출이자 인하, 임대료 감면 등 대책과 논의가 액수로만 계산되고 있는 가운데, 그것만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족관계 손실에 대한 누수를 막기 위한 가족센터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될 때이다.

참고문헌

- 이찬수(2014). 재난: 자연의 타자화, 인간의 사물화. 종교문화비평학회지, 26
- 장정은(2018). 에로스와 심리치료: 사랑을 통한 치료로서의 정신분석. 목회와 상담, 241
- 문효진(2020). 중·고령 여성 자영업자의 개인연금 유지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국가법령정보센터(2016). 건강가정기본법(위기가족긴급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정의), 서울: 법제처.
- 도봉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2020). 도봉구 지역사회 요구도 조사 보고서.
- 여성가족부(2020).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 변화와 정책과제. 서울: 여성가족부.
- 중소기업중앙회(2020).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 일과 삶의 변화 조사 보고서.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 진미정, 성미애, 손서희, 유재연, 이재림, 장영은(2020).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가족생활 및 가족관계의 변화와 스트레스.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8(3), 447-461.
- 한병철(2021). 고통없는 사회 (이재영 역). 서울: 김영사(2021)
- Benjamin, Walter(2007). *일방통행로/사유이미지* (김영옥외 2인 역). 서울: 동학사(1928).
- Butler, Judith(2013). *윤리적 폭력비판* (양효실 역). 서울: 인간사랑(2005).
- Delaney & Shrader(2000). *Gender and post-disaster reconstruction: The case of Hurricane Mitch in Honduras and Nicaragua*. Washington: Decision Review draft.
- Miller-McLemore, Bonnie(2017). *The Living Human Web: A Twenty-Five Year Retrospective*. 서울: 한국목회상담협회·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사례발표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1인가구 심리 방역 프로젝트
“동일이를 부탁해”

이진선 총괄팀장
동대문구가족센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
1인가구 심리 방역 프로젝트

동 일 이 를 부 탁 해

동대문구가족센터
총괄팀장 이진선

동대문구가족센터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복지 전문기관

Vision


함께하는 가족, 함께 해서 행복한 이웃

- 조화**
· 다양한 가족과 지역사회의 **조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
- 평등**
· 돌봄친화적인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 행복**
· 개인과 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행복** 추구

동대문구1인가구지원센터


1인가구가 겪는 생활 속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교육·문화 통합서비스 제공

05.23. 서울시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구축 시범사업 운영




2018

03.29. 서울시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구축 지원 '나도 혼자 산다' 공모 선정




2019

01.01. 1인가구지원센터 개소



2020



사업대상

- 동대문구 생활권(거주 또는 근로 등) 1인가구

지원내용

- 전문 심리 상담, 교육 문화 프로그램(관계개선, 적용지원, 자기돌봄, 맞춤형), 사회적 관계망 지원, 1인가구 사례관리, 시범 및 공모사업 등

동대문구 현황

동대문구 거주 1인가구 비율



동대문구 1인가구 현황

연도	1인가구 수(가구)	작년 1인가구 수 대비	1인가구 비율
2020년 1인가구 수(가구)	60,925가구	4.8% ↑	40.5%
2019년 1인가구 수(가구)	58,152가구	4.6% ↑	39.2%
2018년 1인가구 수(가구)	55,593가구	2.8% ↑	37.8%

연도	회원 수(명)	남성 회원 비율	여성 회원 비율
2021년 회원 수(명)	270명	27%	73%
2020년 회원 수(명)	125명	31%	69%

동대문구가족센터

사업명

변하는 서울가족환경, 가족 다양성 확대 지원 사업

포스트 코로나 시대,
1인가구 심리 방역 프로젝트

동일이를 부탁해

동대문구 1인가구지원센터

“동일이란?”

동대문구 1인가구를 상징하는 명칭으로, 대상자를 브랜딩하고 상호 간 소속감과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

동대문구가족센터

기획의도 및 목적

포스트 코로나 시대, 1인가구 심리 방역 프로젝트 '동일이를 부탁해'

<p>1인가구 연령별·특성별 관계망 형성 지원으로 지지체계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독·외로움 해소 · 세대 갈등 완화 · 고용중단 극복 연대 강화 	<p>관계망 구축을 통한 1인가구 식생활 문제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식사문화 형성 · 1인가구 식생활 역량 증진
<p>고용중단 여성 1인가구의 긍정적 자기인식과 심리 회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 강화로 자존감 향상 · 재취업 의지 회복 	<p>1인가구 대상자 발굴 및 특성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대문구 특화사업 운영 · 1인가구 복지 증진 ·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일조

동대문구가족센터

사업 내용

포스트 코로나 시대, 1인가구 심리 방역 프로젝트 '동일이를 부탁해'



**1인가구 다 함께
따뜻한 밥 한끼
'따밥따밥'**

건강한 식생활 문화 형성과 소통
기회를 제공하는 소셜다이닝 운영
및 여가문화 서비스 제공



**고용중단 여성 1인가구
심리 회복 프로젝트
'동일이의 나로서기'**

고용중단 여성 1인가구의 자신감
및 자존감 회복을 위한 긍정적
자기인식·회복 프로젝트



**전통시장 나들이 및
재료 품앗이
'나눔의 미덕'**

이웃과 함께 관내 전통시장 투어,
소통 교육과 함께 구매한 식재료를
나눔하는 프로그램

동대문구가족센터

사업 추진 결과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1인가구 심리 방역 프로젝트 '동일이를 부탁해'

1인가구 다 함께 따뜻한 밥 한끼 '따밥따밥'

· 건강한 식생활 문화 형성과 소통 기회를 제공하는 소셜다이닝 운영 및 여가문화 서비스 제공

산출목표/달성실적

- 목표 7건 7회 70명
- 달성 7건 7회 71명(101% 달성)
- 이용자 만족도 4.70점



질적 성과

-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 환기
- 세대를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네트워킹 형성 지원
- 중장년 대상 비대면 플랫폼 사전교육 실시를
통해 중장년 참여 활성화 등

자원 연계

- 관내 사회적경제기업과의 네트워킹 형성
- 네트워크 기반으로 감사 섭외,
자원연계 등 효율성 극대화

사후 관리

- 사업기획-중간점검-결과 평가 시, 원류 반영
- 공모사업 신청을 통한 자원 마련
- 2021 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 '동일이의 나로서기'

사업 추진 결과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1인가구 심리 방역 프로젝트 '동일이를 부탁해'

고용중단 여성 1인가구 심리 회복 프로젝트 '동일이의 나로서기'

· 고용중단 여성 1인가구의 자신감 및 자존감 회복을 위한 긍정적 자기인식·회복 프로젝트

산출목표/달성실적

- 목표 8건 8회 120명
- 달성 8건 8회 120명(100% 달성)
- 이용자 만족도 4.70점

자원 연계

- 2021 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 공모를 통한 사업비 확보
- 센터 내 활동 재료와 감사 자원 활용 및 신규 감사 발굴 노력



질적 성과

- 긍정적 자기 인식, 자존감 회복에 방점을 둔 다회기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고용중단 극복 연대감 강화 및 재취업 의지 회복
- 시각지체에 높은 여성 1인가구를 발굴하여 복지 증진 및 동대문구만의 특화 사업 운영

사후 관리

- 사업기회-중간점검-결과 평가 시, 환류 반영
- 2022년 양성평등기금지원 공모사업 참여로 프로그램의 연속성 확보
-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협업

사업 추진 결과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1인가구 심리 방역 프로젝트 '동일이를 부탁해'

전통시장 나눔이 및 재료 풀앗이 '나눔의 미덕'

· 이웃과 함께 관내 전통시장 투어, 소통 교육과 함께 구매한 식재료를 나누는 프로그램

산출목표/달성실적

- 목표 5건 5회 50명
- 달성 5건 5회 50명(100% 달성)
- 이용자 만족도 4.98점

자원 연계

- 관내 전통시장, 요리연구소 등 사전 방문하여 운영 협조 요청
- 센터 내 활동 재료와 감사 자원, 유관기관 장소 지원 등 연계 노력



질적 성과

- 긍정적 자기 인식, 자존감 회복에 방점을 둔 다회기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고용중단 극복 연대감 강화 및 재취업 의지 회복
- 시각지체에 높은 여성 1인가구를 발굴하여 복지 증진 및 동대문구만의 특화 사업 운영

사후 관리

- 사업기회-중간점검-결과 평가 시, 환류 반영
- 2021년 1인가구지원사업 내 예산 추가 편성
- 센터 내 사회적 관계망 지원사업 참여 독려

종합의견

K-Family, 변화와 정책의 확장

동대문구가족센터

동대문구 내 1인가구 현황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동대문구 지역 인구 분석 실시
- 1인가구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현
- 관내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용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되어 유연하게 적용 및 표준화 가능

- 동적·정적 활동 균형을 고려한 기획 구조
- 3가지 세부 사업을 개별 또는 통합 운영의 형태로 유연하게 적용 가능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어려움 해소 도모

- 복지 사각지대 1인가구 발굴
- 지역사회와의 단절 예방
- 심리적·신체적 정서적 건강 증진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로 운영 효율 극대화

- 외부사업 공모를 통해 예산 확보
- 네트워크망 활용으로 홍보 효과 극대화
- 적절한 자원 연계로 효율적 사후관리



사례발표 3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 간의
소통프로그램
“서로 돌봄, 함께 돌봄”

장경임 사무국장
서울중구가족센터

“서로 돌봄, 함께 돌봄”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 간의 소통프로그램

서울중구가족센터 / 장경임

CONTENTS

1. 기관 소개
2. 사업추진 필요성
3. 사업 내용
4. 사업 결과

CHAPTER 01.

기관 소개

기관 소개

서울중구가족센터 미션 및 연혁

미션

함께 만들어가는 중구 모든 가족의 행복실현

비전

가족, 세상, 미래를 잇는 행복 메이커스

핵심
가치

가족
존중, 이해

세상
포용, 상생

미래
도전, 창조

2006

서울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

2013

서울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소

2019

서울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센터 출범

2020

하·남·용·남·재·간 '제12회 하나다문화대상 행복도움상' 수상
서울시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인센티브 달성

2021

여성가족부 지역센터 평가 '우수센터' 선정, 장관상 수상
서울중구 공동육아나눔터 개소

기관 소개

서울중구가족센터 조직도



CHAPTER 02.

사업추진 필요성

사업추진 필요성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중구



사업추진 필요성

아이돌봄에 대한 전문적 업무로의 인식개선 필요

이용가정의 아이돌봄 업무를 바라보는 인식

- 누구나 집에 가서 애 봐주는 일
-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 가사와 돌봄 업무를 동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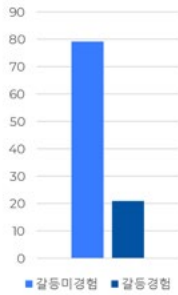
아이돌보미의 아이돌봄 업무를 바라보는 인식

- 누구나 집에 가서 애 봐주는 일
- 잠시 시간 내서 하는 일
- 직업인에 대한 인식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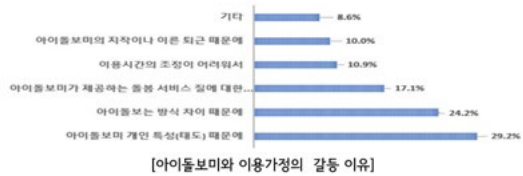
출처 : 돌봄 노동의 가치와 근로자성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아이돌보미 처우와 지원 중심으로 / 전미영·이혁수(2019)

사업추진 필요성

아이돌보미, 이용가정 간의 소통을 통한 지지체계 필요



[아이돌보미, 이용가정 갈등경험 여부]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의 갈등 이유]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의 갈등 해결방법]

출처 : 아이돌봄서비스 품질향상 방안연구 / 윤정희·김성순(2020)

사업추진 필요성

아이돌보미 근무환경 개선으로 직무만족도 향상 기대

- # 소속 아이돌보미 대상 2020년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 까지 보육효능감, 근무환경, 직무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 근무환경이 아이돌보미의 직무만족도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요인임
- # 소통으로 이용가정의 근무환경 개선이 아이돌보미 직무만족도 향상 기대

매개효과 검증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B(S.E.)	t	p	R ² (수정된 R ²)
1단계	보육효능감	근무환경	.764 (2.40)	3.183	.002**	.123 (.111)
2단계	보육효능감	직무만족도	.470 (1.69)	2.780	.007**	.087 (.084)
3단계 (독립변수)	보육효능감	직무만족도	.212 (1.60)	1.329	.188	.304 (.285)
3단계 (매개변수)	근무환경	직무만족도	.337 (0.73)	4.600	.000***	

***p<.001 **p<.01 *p<.05

[보육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무환경의 매개효과]

출처 : 아이돌보미 직무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 서울중구가족센터(2020)

CHAPTER 03.

사업 내용

사업 내용

사업 목적 및 목표

사업기간

2020.01.01. ~ 2021.12 31.(총 24개월)


사업목적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 간의 소통을 통한 행복한 돌봄문화 조성

사업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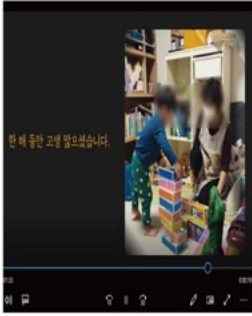
1. 아이돌보미, 이용가정 간 소통 할 수 있는 기회의 장 마련
2.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 간 돌봄의 격려 메시지로 아이돌봄서비스 인식개선

사업 내용		사업 세부 운영 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내용	회기	참여대상	운영 내용
"감사해요. 함께 돌봄"	돌봄을 함께하는 마음을 나누는 수기공모 및 시상	총 2회	중구 아이돌보미 및 이용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돌봄 수기 공모 선정 / 아이돌봄 활동 동영상 선정 공모전 시상 및 감사행사
"행복해요. 서로 돌봄"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의 마음을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총 2회	중구 아이돌보미 및 이용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는 환상의 짝궁(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이 한 팀이 되어 서로에 대한 퀴즈) 진행 아이돌보미, 이용가정이 2개의 소그룹으로 나눠 서로에게 전할 물품 만들기 상호에게 선물과 카드로 마음 전하기
"나누어요. 아이돌봄"	수기와 돌봄활동 동영상 캠페인	총 1회	관내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아동과 아이돌보미가 행복하고 즐거웠던 순간의, 사진, 동영상, 수기 후기문 홍보 E-BOOK을 활용한 아이돌봄서비스 인식개선 홍보
		총 2회	중구 아이돌보미 및 이용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돌봄 수기 및 놀이활동 동영상 공모 공모작 바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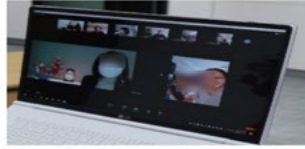
사업 내용		사업 추진 전략
<p>추진전략 1.</p> <p>아이돌보미·이용가정·센터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 마련</p>		<p>추진전략 2.</p> <p>아이돌보미·이용가정 상호 소통프로그램 후 도출된 결과물을 이용하여 돌봄서비스 인식개선 홍보 진행</p> <p>추진전략 3.</p> <p>아이돌보미의 사전 설문 조사, 이용가정의 전화 모니터링 등을 통한 참여자 요구 반영과 지속적 평가 환류로 점진적 확장</p>

사업 내용

활동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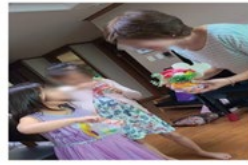
[사진&수기공모 당첨작 동영상]



[이용자 수기 공모전 당첨작 수상]



[2020년 감사행사 진행 모습]



[아이돌봄미와 아이돌보미 상호간 선물과 마음을 전하는 모습]

사업 내용

사진&후기공모전 당선작



[아이돌보미 수기공모 당첨작]



[이용가정 수기공모 당첨작]



[아이돌보미·이용가정 사진공모 당첨작]

사업 내용

홍보 자료



[E-BOOK 활용한 중구아이돌봄서비스 홍보]



[중구아이돌봄서비스 사진&수기 공모전]



[아이돌봄미 · 이용가정 · 센터 소통 프로그램]

CHAPTER 04.

사업결과

사업 결과

사업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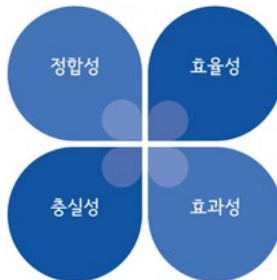
(성과)목표	측정도구	평가방법	성과지표
아이돌봄미, 이용가정 간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 마련	프로그램 참여도	실시 횟수	연 2회기 이상
	프로그램 후기문	아이돌봄미와 이용가정 후기문	5건 이상
	프로그램 만족도	만족도	백분율 86% 이상
아이돌봄미와 이용가정 간 돌봄의 격려 메시지로 아이돌봄서비스 인식개선	프로그램 만족도	후기문 및 사진	5건 이상
	프로그램 참여도	활동 동영상	3건 이상
	프로그램 참여도	가정수	150가정 이상

사업 결과

사업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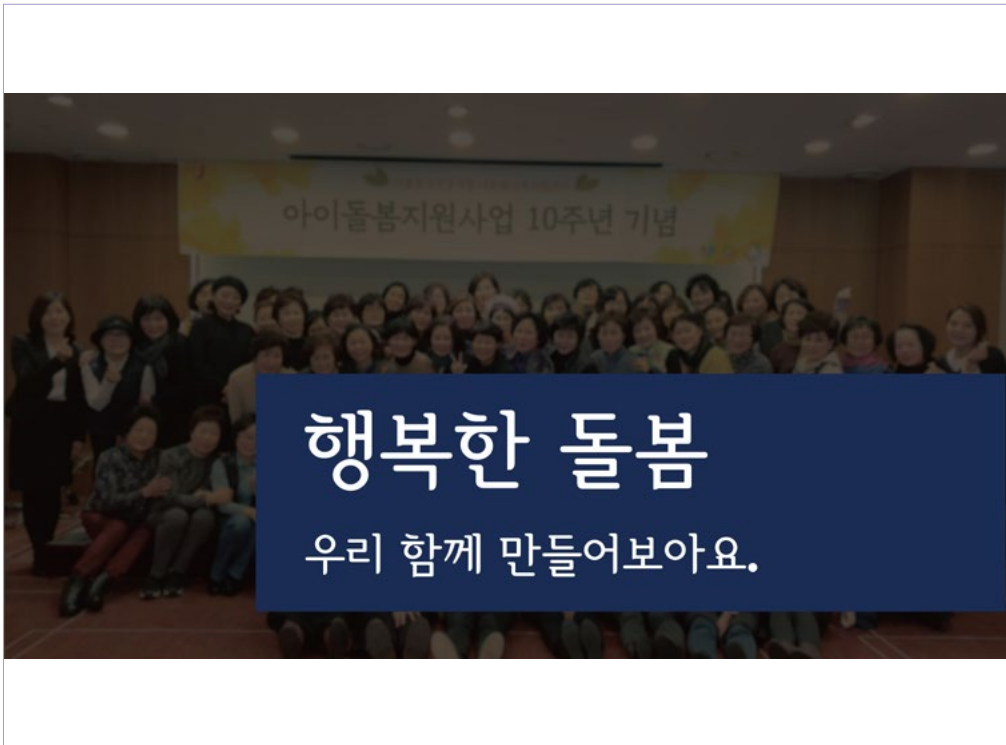
- 아이돌봄미와 이용가정 간의 소통 프로그램 기획
- 코로나19로 인한 돌봄노동의 가치와 중요도를 반영한 기획
- 맞춤형 이용가정이 많은 중구 특성을 고려한 구성

- 이용자들의 욕구확인을 통한 프로그램 기획
- 내부원류를 통한 프로그램 발전
- 어느 처치구에나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구성



- 별도의 강사 투입없이 센터직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진행
- 프로그램 후 상호작용 결과물을 이용하여 돌봄서비스 인식개선 홍보

-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이해도 증가 도모
- 실 사용자의 후기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파급 효과
- 아이돌봄미와 이용가정의 소통을 통한 아이돌봄미 근무 환경 개선 노력



종합토론 1

다양한 가족 수용성 증진을 위한 성인지관점 가족사업 방향 제언

김숙이

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다양한 가족 수용성 증진을 위한 성인지관점 가족사업 방향 제언

김숙이 | 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I. 공모된 서울가족사업의 특징과 성과

2021년 서울가족사업으로 제출된 프로그램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며 모든 사회관계와 사회활동이 제약을 받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 가족들이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지원하려는 목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제출된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를 바탕으로 두고 기획되었음을 볼 수 있으며, '소상공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업, 그리고 가족을 '환경 메이커스'로 연결하는 사업, '돌봄노동(자)'와 관련한 사업 등은 이러한 의지를 뚜렷하게 잘 드러내는 사례이다.

대부분의 사업이 우리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해온 가족 관계와 형태의 다양화를 인식하고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사업의 대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부부'로 이루어진 기존의 가족 뿐만 아니라 '1인 가구', '한부모가족', '예비 부부', '맞벌이 가정', '다문화가정', '다양한 가족', '결혼이민자'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설정되고 있다. 이는 다양하게 변화해온 가족'들이 존재하는 우리의 현실, 즉 제4차 건강가정지원계획에서도 제시된 것처럼 '가족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확대된 효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코로나19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변화이자 위기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지금

상황에서 누가 더 직장을 잃을 위험, 즉 고용위기나 해고의 위협을 겪고 있을까? 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온 기관이 예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돌봄’의 위기를 겪고 있는 가족은 어떤 가족이며 그 안에서 ‘돌봄노동’은 누구의 몫이 될까?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가족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가족 상황을 구체적으로 묻고 세부적인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이러한 질문들이 필수적으로 수반될 때 가족정책과 가족사업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몽똥그려서 ‘가족’이나 ‘지원’, ‘정책’, ‘사업’을 구상하기보다는 특정한 상황에 놓인 ‘가족’의 상황과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질문들을 던져보자. 구체적으로 어떤 가족, ‘누구’를 지원하고자 하는가? 또 그 가족과 가족원이 겪는 ‘문제’는 무엇인가? 아래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공모된 사업이 가진 긍정적 효과 이외에 한계점을 중심으로 짚어보고, 지금 실시되는 가족정책이 ‘가족 다양성’을 실질적으로 체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 또 제언하고자 한다.

II. 가족 다양성에 바탕한 정책과 사업을 위한 제언

1) 가족의 변화는 현재 진행형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안다. 특히나 가족 지원 정책과 사업을 담당자들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반만 알거나, 다 알지 못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고 겪고 그래서 인식에도 변화를 가져오는 경험은 모두가 부분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변화하는 가족 상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가족 다양성’의 다양성을 이루는 다양한 형태와 구성은 또 어떻게 다양한지는 여전히 변화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가족 상황의 변화를 안다고 할 때, 무엇보다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식도 부분적이고 상황적이며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일 것이다.

그리고 2021년 가족사업 공모전에 제출된 사업들이 가족의 변화가 지속된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좀 더 나아가야 할 지점을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제안해볼 수 있다.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가족들이 활동이 위축되고 고립을 겪는 상황에 대응하는 사업은 중요하나, 그 사업 대상을 '부부'로 한정하기보다 모든 커플로 확대할 필요성
-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의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이 많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긍정적이지만 '다양한 가족'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접근할 필요성
- 또한 코로나19 상황으로 가족들이 겪는 문제 중 하나로 '폭력'이나 '고립'의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는 사업은 필요하나, 그 대상을 '다문화가족'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
- 코로나19에 대응하며 '온라인'과 '소규모'로 생활이 전환되고 일상생활의 관계가 재구성되는 상황에서, 이전과 같은 '대규모 온라인 축제'뿐 아니라 변화된 상황에 기반해 다각적으로 소통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업기획의 필요성
-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가족들이 돌봄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중요하지만, 여성이 대다수인 돌봄서비스의 제공자의 특성, 또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 기획과 진행의 필요성
- 가족의 변화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인 1인 가구의 확대를 인식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중요하지만, 1인 가구가 겪는 어려움(외로움, 고용문제 등)을 연령별, 성별, 계층별 등으로 좀 더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할 필요성

2)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이분법 넘어서기

기존의 논의에서도 이미 많이 얘기된 것처럼, 사회변화와 함께 가족 또한 이에 대응하며 변화해왔으며 그 결과가 현재 우리가 마주하는 '가족 다양성'이다. 기존의 가족이 말고 있던 사회의 재생산이나 인구 재생산의 기능도 바뀌어 왔으며, 연애와 섹슈얼리티, 결혼을 비롯한 친밀한 관계와 관행 또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단지 기존의 가족에 몇 가지 형태의 가족을 추가하는 수준을 넘어, 가족의 개념과 가족의 범위 자체에 대해 새롭게 논의하고 재규정할 필요성을 포함한다. 이런 측면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에서 혼인과 혈연에 기초한 관계를 넘어 비혼 동거나 아동 위탁 포괄하는 방향으로 마련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가족 개념이나 범위에 대한 더 근원적 접근이나 재규정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기도 하다.

가족사업의 경우에도 다양한 가족 상황을 파악하고 그 위에서 '가족구조별', '생애주기별' 접근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접근이 갖고 있는 한계도 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가족구조'는 가족의 기능이 변화한 사회 현실까지 염두에 두고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인가, 아니면 특정 가족구성원, 즉 한부모, 다문화 등 대상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접근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인가?

또 가족사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생애주기'라는 개념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 변화와 이에 따라 사람들의 생애 경험도 크게 변화한 상황까지 염두에 둔 개념인가, 아니면 연령별 생애주기라 고정되어 있다는 기존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 기존 논의에서 생애주기에 따라 '발달 과업'을 설정한 것은 과연 지금 우리사회 구성원들에게 여전히 적절한가, 아니면 특정한 연령에 도달해야 하는 사회적 역할과 기준으로서 '정상성'을 부과하고 그것에서 벗어날 경우 '비정상'적이라는 편견을 내재하는 것인가? 이런 점에서 가족구조나 생애주기와 관련한 기존의 논의에 내재된 '규범성'을 넘어서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상성'과 '비정상성'이라는 이분법 기초한 개념을 넘어서 선 가족, 생애주기 등에 대한 개념의 확대와 재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할 때 그야말로 '가족 다양성'이 체현된 가족정책과 가족사업에 다가설 수 있다.

종합토론 2

팬데믹 이후, 서울가족사업 현장의 변화흐름 및 방향

손서희

숙명여자대학교 가족지원경영학과 교수

팬데믹 이후, 서울가족사업 현장 의 변화 흐름 및 방향

숙명여자대학교
손서희

2021 서울가족사업 공모전 참여 사업의 특징

-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한 가족사업의 지속적 운영
 -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 결혼준비학교, 가족축제, 가족봉사단 등
-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감 극복을 위한 관계 지원 프로그램
 - 다양한 가족의 사회적 관계망 지원
-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의 교류 기회
 - 아이돌보미 지원
- 시의성 있는 주제: 환경

서울지역 가족사업 사례발표

- 도봉구 소상공인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맞춤형 방문프로그램
 - 가족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센터 중심 서비스에서 소외된 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큰 집단, 일·생활균형지원의 사각지대

- 포스트코로나시대, 1인가구 심리방역 프로젝트
 - 1인가구 욕구조사 결과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한 외로움, 고독감 등이 높은 집단
 - 1인가구 연령별, 특성별 맞춤형 지원

- 아이돌봄 이용가정 소통프로그램
 - 돌봄제공자의 소진 예방, 돌봄의 질 향상, 신뢰 구축

2021 한국가족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가족사업 세미나
K-Family, 변화와 정책의 확장

발행일 2021. 11.
공동주관 한국가족정책학회, 서울특별시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주최 사회보장위원회, 서울특별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화 02)318-8167 / 010-9468-9687
디자인편집 힐데와소피

본 자료집의 저작권은 한국가족정책학회 및 서울특별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있습니다.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무단복제와 배포를 금지합니다.



2021 한국가족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서울가족사업 세미나

K-Family, 변화와 정책의 확장
